

제2662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오세훈표 도시재생’ 2만4000가구 공급 **5**



이철희 수석 “日 계속 엉뚱한 소리… 불쾌” **8**

코스피(17일) **3264.96** (-13.72P)
코스닥 **1003.72** (+5.23P)
환율(달러당 원화) **1130.40** (+13.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327%** (+0.041%p)

3D로 퀴즈 풀고, 아바타가 면접 보고, VR로 다큐 감상...

‘메타버스’ 액셀 밟는 삼성·LG·SK

국내 전자업체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돼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Metaverse·초월과 현실세계의 합성어)에 주목하며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도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메타버스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관련 기술개발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청소년 대상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드림 토크’를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에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강의와 마친 학생들이 별도 시스템에 접속, ‘OX’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 있다.

LG전자는 최근 인기게임인 ‘동물의 숲’

전자업계 “MZ세대와 소통하라”
거리두기 제약 없는 가상세계서
교육·채용·마케팅 개발실험 박차

가상공간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섬을 마련하고, LG 올레드 TV 마케팅을 펼쳤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접목한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는 가상 세계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LG이노텍은 지난달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취업준비생 400여 명을 대신한 아바타들이 3D 그래픽으로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제 구직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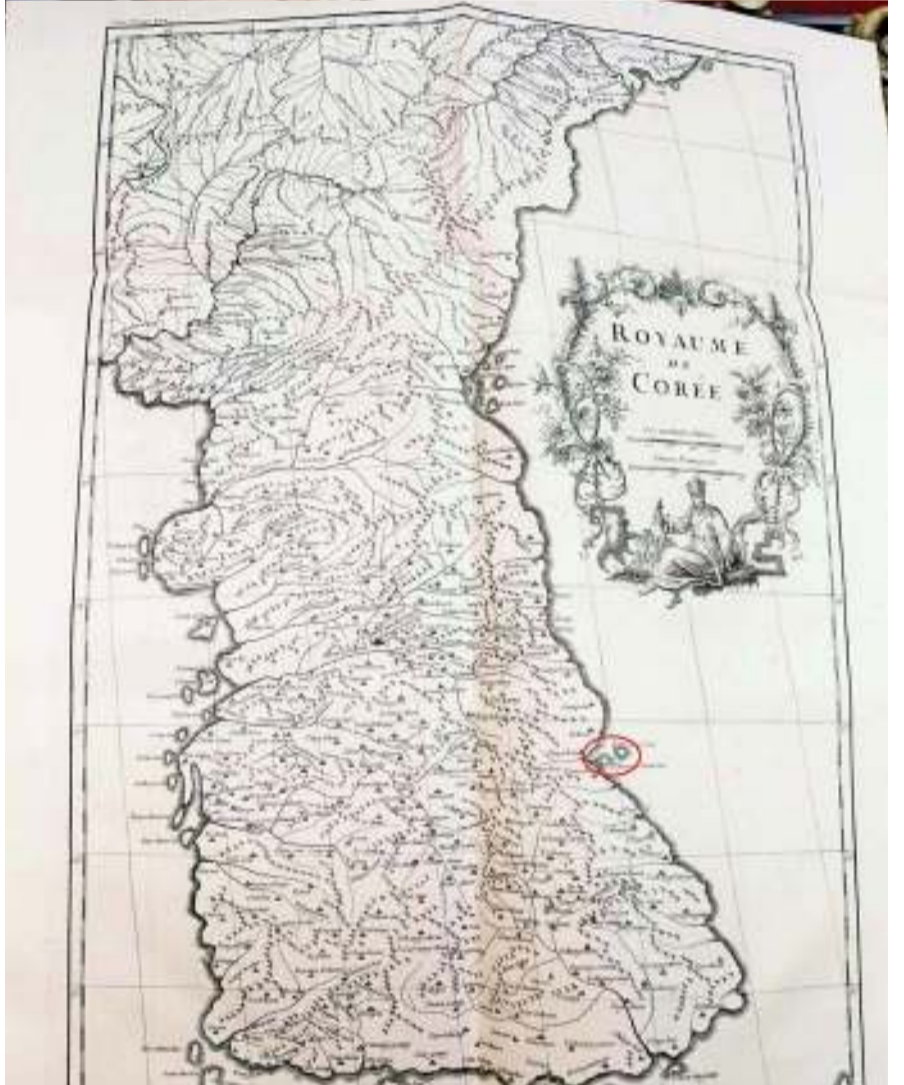
메타버스를 산업적·기술적 시각으로 접근

한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를 신 사업으로 낙점해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MR(융합현실)서비스 CO’ 조직 명칭을 ‘메타버스CO’로 바꿨으며, 최근 인적분할 발표에서도 기존 텔레콤을 ‘AI 기반 구독마케팅과 메타버스 사업’ 기반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KT는 최근 VR 후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비브스튜디오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D램과 낸드를 하나로 합친 멀티칩 패키지를 출시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겨냥했다. 고해상도 영상의 끊김 없는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은 물론 메타버스까지 5G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이 특징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가상과 현실을 잇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적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계속 인기를 얻어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스페인서 확인한 ‘독도는 한국땅’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상원 도서관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도서관 내 소장돼 있는 ‘조선왕국전도’를 꼼꼼히 살펴본 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위> ‘조선왕국전도’ <아래>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농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다.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중국어식 발음으로 지명이 표시돼 있다. 당시 독도(뿔간색 동그라미)를 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해 ‘천산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美 금리인상 예고에 시장 출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시간표를 앞당겼다. 테이퍼링(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논의도 고개를 들었다.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 증시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도 커졌다. ▶관련기사 4면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15~1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에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달 1200억 달러(약 136조 원) 규모의 자산 매입도 지속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동결했지만,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파월 ‘테이퍼링 언급’에 불안 증폭
연준위원 “2년내 두 번 인상 예상”

미국 경제 회복과 물가상승률 가속화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 전망을 기존 2024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앞당긴 것이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총 18명 멤버 중에서 2023년 금리가 오른다고 전망한 위원들은 3월의 7명에서 1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의 전망 중간값은 2023년 말까지 0.6%로 집계되면서, 이때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연준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초점이

연준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초점이

되는 올해 물가상승률에 대해 3.4%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3월보다 1%포인트 높고 연준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연준은 “최근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기존 견해는 유지했다.

재물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관심사였던 테이퍼링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논의할지 의견을 나눴다”며 “테이퍼링 시점은 ‘훨씬 이후’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지표를 확인한 뒤 (테이퍼링)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에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홍남기 “디딤돌 대출 늘리고, 공공 토지주 稅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 마련”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가구 1입주권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

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전국 46만 호, 서울 8만3000호) 확보가 가능하다”며 “내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릉CC는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접종대상 全국민 확대… AZ 연령조정 검토”

당국 “9월까지 70% 완료 목표”

7월부터 상반기 미접종 60~74세 고령층과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다.

접종대상은 △60~74세 중 6월 미접종자(7월 초)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중 6월 미접종자(7월 5일) △고교 3학년생, 고등학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과 돌봄인력(7월 19일) △50대 장년층(7월 26일) △40세 이하(8월 이후)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50대는 고령층부터, 40대 이하

는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을 받는다. 백신 도입 물량·시기에 따라 예약은 1~2주 간격으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6면

AZ 백신 접종연령 조정방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AZ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확진된 30대 남성이 전날 숨졌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접종과 TTS 발생 간 인과성이 인정됐다. 사인이 TTS에 의한 뇌출혈인 만큼 사실상 ‘접종에 의한 첫 사망 사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브리핑에서 “AZ 접종 일정과 접종 가능한 연령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텐센트 연결고리 없다” 크라프트론 거짓말 들통

배그 유사 ‘화평정영’ 로열티 받아 금융위 증권신고서에서 드러나 내달 상장 앞두고 악영향 우려 ‘中 대립’ 인도 재진출도 빨간불

크라프트론이 7월 상장 목표 일정을 공개한 직후 잡음이 휩싸였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중국 텐센트가 서비스하는 게임과의 로열티 계약 사실이 알려지며 신뢰도에 금이 가사다. 특히 중국과 국경 문제 등으로 쟁쟁한 인도 시장에서의 서비스 중단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크라프트론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크라프트론이 중국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화평정영’과 계약하고 로열티 매출을 받아 왔다는 점이다. 크라프트론은 텐센트와 손잡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공동으로 제작해 2018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듬해 5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이후 텐센트는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화평정영’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크라프트론 최대 주주는 지분 16.4%의 장병규 의장이며, 2대 주주는 지분 15.5%를 보유한 중국 텐센트다.

배틀그라운드와 화평정영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회사 측은 “화평정영과 연결고리는 없고 로열티도 받지 않는다”며 일축해 왔다.

그런데 전날 증권신고서엔 그동안의 부인과는 달리 텐센트와의 로열티 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거짓 해명이 들통난 것.

크라프트론 관계자는 “양사 협의를 통해

계약 사항 중 기술 서비스 수수료를 이번 증권신고서로 투자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작은 리스크까지 모두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프트론이 중국에 우회하는 방법으로 판호를 획득하고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진 셈이다.

크라프트론과 텐센트의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재출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크라프트론 전체 매출액 가운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약 80%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인도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용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인도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됐다. 크라프트론 게임의 해외 유통을 맡은 중국의 ‘텐센트’ 때문이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인도 정부가 중국 앱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 이에 크라프트론은 텐센트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배그 모바일 인도는 5월 18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사전예약자 2000만 명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선 현지에서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크라프트론이 텐센트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인도 정부가 서비스 출시를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업계에서는 중국 텐센트 관련 리스크를 이겨내야 실적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도 시장에 게임이 계획대로 출시된다 하더라도 언제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한 외출 타기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크라프트론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며 “사회적 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이것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성정 품에 안긴 ‘이스타항공’ 날개 펴까

우선매수권 행사, 쌍방을 제쳐 1100억 매입, 법원 21일 결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부동산기업 성정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의 길을 찾았으나 일각에서는 ‘인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매각 주관사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매각 주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공개입찰에서는 쌍방을 그룹이 단독 입찰했다.

본입찰에서 쌍방을그룹이 더 높은 가격(약 1100억 원)을 제시했으나 성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쌍방을과 동일한 가격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공익채권 등 채무 승계와 관련해서도 쌍방을그룹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조건부 계약 체결 당시 공



익채권 387억 원에 대해 채권승계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쌍방을 측이 제안한 전액 일시납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21일 최종 인수를 확정한다. 자금 조달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다.

성정은 업무협약(MOU) 체결 후 다음 달 2일까지 실사를 진행하며 이스타항공과 투자 계약을 맺는다. 이후 부채 상황, 유상증자 등 계획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성정의 자금 조달력을 놓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돼 이를 재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 리스 계약 등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정상화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운영자금에 1500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정은 인수 이후 운영자금을 감당해야 한다.

성정은 충청도 부여에 본사를 두고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다.

성정은 사주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성정의 자금조달 계획과 자금력, 경영 의사 등을 검토하고 우선매수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특금법 앞두고 빚썸도 ‘잡코인’ 정리

오로라 등 4개 거래 중지

업비트에 이어 거래대금 기준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빚썸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나서면서 거래소의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빚썸은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비인(DVC), 디브이피(DVP) 4종의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빚썸은 이와 함께 아픽스(APIX)와 람다(LAMB) 2종의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

으로 신규 지정했다. 빚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빚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지정 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빚썸은 “과거부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상장 시와 동일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의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에이아이노믹스(AIM), 이더캐럿(ETCT), 푸드리서치인스티튜트(FRI) 3종의 코인이 낮

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코인 시장 관리 방침이 나온 지난달 28일에는 6개의 코인을 지원 종료해 이날까지 정리된 코인만 17개다.

9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잡코인 정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업비트는 5종의 코인에 대해 18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단하고 25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빗도 8종의 코인에 대해 23일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고 15일 공지했다. 아울러 28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23일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코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KPX 전력거래소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

20

SINCE 2001

전력거래소 20주년

“문화·교육·비즈니스 ‘아바타 세상’ 3년 후 일상화”

전진수 SKT 메타버스CO장 ‘VR·AR엑스포’ 기조연설

SK텔레콤(SKTEL)이 공연, 교육, 헬스케어 등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 스타트업 등과 협업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진수 SKT 메타버스CO(컴퍼니)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VR·AR 엑스포 2021’ 기조연설에서 메타버스가 바꿀 미래를 제시했다.

SKT는 일찌감치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낙점해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MR(융합현실)서비스 CO’ 조직의 명칭을 올해 4월 28일 ‘메타버스CO’로 바꾼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인적분할 발표에서도 메타버스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SKT는 커머스, 보안, 콘텐츠 자회사들을 SKT신설투자회사(가칭)로 이동하고, 기존 텔레콤은 ‘AI 기반의 구독마케팅과 메타버스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SKT는 14일 국내 비추얼 프로덕션(VP) 전문 스튜디오 비브스튜디오에

“MZ세대, 가상세계 수용도 높아 현실보다 구성원 소통도 효과적 스타트업·MS·페이스북 등 제휴 다양한 파트너들과 사업 고도화”

자본 투자를 단행했다. 비브스튜디오는 3차원(3D)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등으로 유명하다.

전 CO장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잡고 있다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높다”면서 미래학자의 말을 인용해 “2024년에는 2D의 인터넷 세상보다 3D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거나 동료들과 회의를 하는 등 일상적인 일에도 메타버스 서비스가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SKT가 적용한 메타버스 분야는 공연, 대학 입학식, 채용 설명회 등으로 다



전진수 SKT 메타버스CO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VR·AR 엑스포 2021’ 기조연설에서 SKT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하다. 그 시도들이 참신할 뿐 아니라 효용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SKT는 순천향대와 협업해 ‘점플VR’ 플랫폼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신입생들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입학 선서를 듣고, 각자 아바타를 활용해 교수님, 동기, 선배들과 상견례를 나눴다.

전 CO장은 “오프라인 입학식 참여율이 보통 그렇게 높지 않은데, 메타버스 입학

식을 여니까 오히려 평년보다 더 많은 신입생이 참여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 CO장은 내부 회의에서도 비추얼 밋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성원들과 줌으로 회의를 할 때 보면 표정들이 다들 어두운데 가상공간 안에서 회의를 하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 같다”며 “비추얼 밋업을 활용한 소통이 더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시장은 페이스북의 VR 헤드셋

‘오culus 퀘스트2(퀘스트2)’ 흥행으로 더 탄력을 받고 있다. SKT는 퀘스트2의 국내 유통권을 확보해 올해 2월부터 공식 판매에 나섰다. 출시 1차 물량은 3일 만에 완판됐고, 3월 2차 물량은 개시 첫날 동났다. 퀘스트2는 출시 뒤 5개월간 전 세계에서 500만 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CO장은 “한국에서 물량이 개시될 때 아이폰 출시 초창기 수준으로 잘 팔렸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VR, AR 시장이 올 거냐 말거냐는 이야기는 매우 오래됐는데 퀘스트2로 콘텐츠 시장도 제대로 열리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미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해 아시아 최대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사인 ‘점프스튜디오’를 열고, 페이스북과 제휴해 퀘스트2 유통한 만큼 글로벌 사업주들과의 동맹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는 분들 등과도 언제든지 협업할 것”이라며 “콘텐츠, 디바이스, 인프라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지민 기자 aaaa3469@

가상세계 관련 산업 흐름 및 문제점

대상(시기)	전성기	성장 정체 요인
세컨드라이프 (2000년대 초중반)	2003년 출시 이후 3년간 100만 이용자 확보 글로벌 기업 홍보·마케팅 위해 활발하게 진출	PC→모바일 전환 시기 기술 개발 부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버블로 이용자 수 감소 이용자 이탈행위 범람으로 인해 콘텐츠 질 하락
3D TV (2010년대 초)	3D 방송 정규 편성 위한 표준화 움직임 3D 블루레이 등 각종 3차원 콘텐츠 언급	높은 제작 비용으로 인한 콘텐츠 부재 지속된 콘텐츠 질 하락
VR (2010년대 중반)	구글·페이스북·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기기 개발 오culus 퀘스트 등 VR 게임 출시	VR 안경의 불편함 해결 못해 일부 게임 제외하고 다양한 방면의 콘텐츠 부재

①콘텐츠 ②제작 플랫폼 ③기기 편의성 메타버스 성공열쇠 ‘세 가지’

전문가 “3D 안경·TV 등 실패사례 되풀이 말아야”

현실 아닌 현실, 가상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기업들의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년간 이어진 수차례의 실패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2003년 출시된 게임 ‘세컨드라이프’가 대표적이다. 가상세계를 구현한 이 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끌자 마이크로소프트(MS),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 국제적 기업들은 가상세계에 진출해 물건을 팔고, 브랜드를 홍보했다.

3D(3차원) 영화 ‘아바타’가 유행한 2000년대 중반엔 삼성·LG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기업은 3D 안경과 TV를 연달아 내놨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도 유행기 시작했다.

그러나 열풍은 오래 가지 못했다. 세컨드라이프는 트위터, 페이스북과의 전쟁에서 패해 존재감을 잃었다. 3D 제품은 대부분 단종됐고, VR 제품도 테마파크나 게임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삼성 등은 관련 사업을 사실상 접으며 ‘썬맛’을 봤다.

과거 ‘세컨드라이프’에서 강의를 했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메타버스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가상세계 관련 산업을 한데 모아놓은 ‘비밀방’ 같은 개념인데, 최근 새로운 별천지인 양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상세계 산업의 기존 약점을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실패 요인으로 무엇보다 ‘콘텐츠 부족’이 꼽힌다.

산업연구원의 박지혜 연구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제공·소비하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구조”라며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이용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플랫폼 내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단한 기초 콘텐츠를 통해 일차적으로 이용자들이 끌어모으고, 이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후속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선 가상세계를 구현할 도구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VR 기기의 경우 오래 착용하기에는 무거운 데다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착용 부위를 바꾸거나, 거울이나 보행기 등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애플은 올해 초 반지, 장갑 형식의 가상-현실 연계 기기 특허를 냈고, 페이스북은 양 손목에 차는 AR 밴드를 개발 중이다.

‘윤리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세컨드라이프가 SNS 물결에 빠르게 무너진 건 그 당시 이용자들의 음란이나 도박, 범죄 등 일탈 행위의 영향이 컸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등장과 맞물려 메타버스 산업이 경제 소비·생산과 더욱 밀접해진 만큼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 연구원은 “메타버스의 위험 요소에 관한 법·제도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평생 무료로 쓰는 결제단말기가 있다고?” 어디서 그런 POS가 나와?

IBK기업은행이 만든 모바일 POS 앱 하나면 스마트폰을 POS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도, 설치도, 유지비용도 모두 무료!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POS 모드
메뉴 관리, 테이블 주문 관리 등 일반 POS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매출 입금확인
가게 매출이 카드사에 정상 매입되었는지, 대금 입금일은 언제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모드
금액 입력 후 결제할 카드나 스마트폰을 사냥님 스마트폰 가까이 대면 결제 완료

일간 재무리포트
일별로, 시간대별로, 메뉴별로 판매현황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283호(2021.06.14) 유효기간(2022.06.13)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우를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ikethics@ibk.co.kr)

코스피 랠리 제동 걸리나... 시름 깊어진 '빚투 개미'



코스닥 두 달 만에 1000 돌파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와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98.49)보다 5.23포인트(0.52%) 오른 1003.72에 마감했다.

美 2023년 금리인상

#. 전업주부(株富)의 삶을 꿈꾸던 직장인 박모(46·여) 씨. 그는 올해 3월 인생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계모임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주식을 처음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이번 달은 남편보다 더 벌었다"고 자랑했다. 박 씨는 지인들과 '주부투자클럽'에 가입하고 함께 주식을 공부하고 있다. 남편 몰래 약 50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인생 첫 주식 투자에 나서 현재 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인상 시사

코스피 0.42%↓ 최고가 접어

"FOMC 리스크 크게 줄 것"

격정 지나치다 전문가 지적도

17일 박 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속에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으로 앞당긴 것이다. 당장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걱정은 덜었지만,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42% 하락한 3264.96에 마감했다. 나흘 만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접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52% 올라 1003.72에 마감했다.

예상보다 충격은 덜했지만, '빚투' (빚내서 투자) 개미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테이퍼링 걱정과 2023년 금리 조기 인상까지 수면으로 떠올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금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외국인까지 받을

뺏다면 충격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 코스피 랠리에 제동 거나=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금리 인상 압박을 줬다. 기업 전반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한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를 떠받치는 유동성도 줄어든다. 2018년 2월 미 국제금리가 급등했을 때 뉴욕증시가 폭락하고 코스피도 일주일 새 2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예로 2018년 4월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약 한 달 새 2.739%에서 2.998%로 0.259%포인트 급등하면서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물량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인플레이 지속 가능성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경로까지 앞당겼다"면서 "잠잠했던 인플레이 경계감을 자극해 유동성 환경에 대한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02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은 3분기 말 현재 1017조1000억 원에 달한다.

위기가 터지면 민간부채는 국가부채로 전이된다. 은행이나 기업이 쓰러지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민간부채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다. 재정이 허약한 국가는 감

당할 수 없는 일이다. 곳곳이 텅 비었던 남유럽 국가들은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돈을 풀더라도 뒷날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건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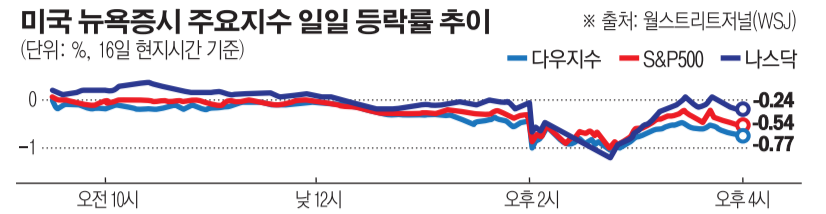
◇'상승장 착시' 경계 vs '금리 내성' = '나만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박탈감에 뒤늦게 '패닉바이' (불안감에 따른 매수)에 나선 개미들의 걱정은 더 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승장의 착시'를 경고한다. 과거보다 잘 나온 3월 이후 개인들의 투자 성적표만 보고 무리하게 빛내서 투자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와 비슷하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2017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플러스(+) 수익률을 냈지만, 이후 2018년 증시가 하락 흐름으로 접어들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 시장금리 상승 등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나타날 변화와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다만, 유동성 장세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경제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격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허진은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FOMC 이벤트 리스크가 크게 줄 것"이라며 "내년 이후 미국의 경기확장이 이어지고, 급등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화되면서 골디락스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미국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축소될 때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면서 "아직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



뉴욕증시 하락 국제금리 급등 2013년 '긴축 발작' 재연되나

연준 돌변에 놀란 시장

달러화 가치 1%가량 올라 亞 신흥국 자금 유출 시작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하게 '매파'로 돌변하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했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54%와 0.24% 내렸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시장이 판단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영향이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미국 국제금리도 조기 긴축 우려에 급등했다. 미국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제금리는 FOMC 결과가 나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심리적 고비인 1.5%를 밑돌고 있었다. 하지만 FOMC 결과가 나오자 연준의 '매파' 돌변에 10년물 국제금리는 1.569%로 전일보다 7bp(bp=0.01%포인트)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2년 만기 국제금리는 0.203%로 최근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 국제금리와 가 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가파르게 뛰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지수는 FOMC

성명 발표 이후 수 시간 만에 거의 1%가량 급등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18일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0.93%, 토픽스지수는 0.62% 각각 떨어졌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올랐지만, 상승폭은 0.21%로 적었다.

시장에서는 2013년의 '긴축 발작'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년 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종료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 국제금리가 오르고,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됐다. 이 속에서 글로벌 자금은 한꺼번에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부진한 경기회복에 허덕이던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유사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선진국들의 향후 금리 인상 전망 속에서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달 아시아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은 5억 달러(약 5648억 원) 순유출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 추진해 온 인프라 투자 법안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경제 성장세는 인프라에 대한 추가 지출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한미 통화스와프 3개월 재연장

600억 달러 한도 올 연말까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일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현 통화스와프 계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19일 최초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 30일과 12월 17일 각각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전 만기일은 올 9월 30일까지였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 198억7200만 달러를 지난해 3월 31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중에 공급한 바 있다. 이들 자금은 지난해 7월 30일자로 전액 상환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과 이 같은 달러화 공급으로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연장 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것은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짧게 짧게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

한·미 통화스와프 일지

연도	일	내용
2008년	10월 30일	미 연준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12월 2일	미 연준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 대출
2009년	2월 4일	통화스와프 만기를 10월 30일로 6개월 연장
	6월 26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10년 2월 1일로 재연장
2010년	2월 1일	미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7월 30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3월 31일로 연장
	12월 17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9월 30일로 재연장
2021년	6월 17일	통화스와프 만기를 2021년 12월 31일로 재연장

* 출처: 한국은행

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 외에도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중이다. 차양마이이니셔티브(CMIM)와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환율 13원 급등... "인상 아직 멀어 외환시장 영향 단기적"

FOMC 여파 환율 움직임

전문가들 "달러강세 어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보다 빨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이 나오자 원·달러 환율이 두 자릿수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신호를 줬지만 2023년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멀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단기적이라고 전망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2원(1.18%) 급등한 1130.4원을 기록해 지난달 20일(1132.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의 한 참여자는 "시장은 고용과 물가지표에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고용

지표가 추가로 확인되는 9월까지의 온건할 것으로 봤던 연준 입장이 바뀌면서 영향을 준 듯하다"면서도 "세계경기가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ECB(유럽중앙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들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해지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원화가 나쁠 것은 없다. 연준 테이퍼링과 인상 시기가 구체화되면 원·달러는 되레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본다. FOMC 여파로 당분간 (하단) 지지력과 변동성을 주겠지만 8월까지 원·달러는 1105원에서 114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작다. 연준이 테이퍼링 신호를 줬지만 2023년 두

차례 인상까지는 시차가 있다. 글로벌 달러화도 강보합세 정도를 보일 것"이라며 "잭슨홀 미팅이 예정된 8월까지 원·달러는 1100원에서 1140원 정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를 거치면서 연준이 테이퍼링 등 입장을 구체화할 것이라 관측이다. 잭슨홀 미팅이란 미국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이 모이는 회의다.

8·9월 이 같은 이벤트를 거친 후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원·달러가 하향안정(원화 강세)될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테이퍼링이 구체화된 후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달러화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 경우 원·달러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오세훈표 도시재생’ 2026년까지 2만4000호 공급

보존서 개발로 방향 전환, 민간투자 6.3조 포함 7조 투입
 소토지주 모아 공동주택 건설 김포공항 일대서 시범사업

보존에 치우쳤던 서울 도시재생 사업이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한다.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재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도시재생의 이름은 그대로 남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내세웠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고 ‘오세훈표 도시재생’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17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뉴타운 출구 전략 성격으로 2013년 박 전 시장이 도입했다. 사업 초기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노후주거지는 보존·관리 위주로만 추진돼 낙후시설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도시재생은 벽화 그리기가 아니라는 비난이 쇄도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서울시가 4월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73.1%)이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도시재생에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73.6%에 달했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에서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2가지로 간소화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이다. 시와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개발해야 할 곳과 관리가 필요한 곳을 구분해 다양한 사업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주거지 재생은 도시재생에 재개발이 어우러지는 방식이다. 크게 재개발 연계형과 소규모 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으로 나뉜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모아주택과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중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

‘2세대 도시재생’ 사업 주요 내용

주거지 재생			중심지특화재생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종합관리형	경제거점 육성형	중심지 활성화형	지역자산 특화형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주거지역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적합지역	한옥밀집지구 등 특성관리가 필요한 지역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	쇠퇴한 도심 상업지역	역사 문화 자산 보유지역

※ 출처: 서울시



선거전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한옥밀집지구, 고도지역 등 재개발이 어렵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종합적인 재생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중심지 특화재생은 이용률이 낮은 대규모 유휴부지, 쇠퇴한 도심 상업지역, 역사·문화 자산보유지역으로 나눠 개발한다. 시범사업은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

다. 주변 공항동 주거지역 일대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용산전자상가 등 기존 15개 재생사업(중심지)은 재구조화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오 시장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026년까지 2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6조3600억 원까지 모두 7조9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원주민 내몰림 가능성... 고민·보완 필요 = 시장에선 이번 도시재생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도시재생 정책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배제해온 만큼 이번 정책은 노후도심 재생과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도시재생이 ‘친서민 정책’의 면모가 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은 경관과 시가지 보전을 중시하고 정비사업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문제가 없었다”며 “2세대 도시재생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주민들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고민과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
 “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신규 택지 조성, 공공 주도 개발 등 주택 공급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하반기 중 필요 절차 진행” = 홍 부총리가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한 건 정부가 그간 내놓았던 공급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달 초 주민 반대에 밀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다른 곳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과천에 이어 서울 용산구(용산역정비장·캠프킴)·노원구(태릉골프장)에서도 공공주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지 축소·철회 요구가 거센 태릉골프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하반기 중 그간의 기초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 주도 개발 관련 세제도 정

비하기로 했다. 토지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제 혜택 늘려 공공 주도 개발 참여 유도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 대해선 새 아파트 취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12%에서 3%로 낮춰 준다. 토지주가 땅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공주도 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땅을 공기업에 매각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공기업에서 다시 사들이는 형태이다 보니 불필요하게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는 주택 입주권을 하나 갖고 있던 가구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만 이런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도 현실화 =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무주택 가구 전용 주택 금융상품) 확대 등 추가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게 주는 LTV 우대 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여 투기과열지구 기준 LTV를 최고 60%까지 허용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니까

인생에 든든한 보탬이 필요한 순간마다 늘 당신 곁을 지켜온 한화생명 앞으로는 지금처럼 당신의 활기찬 인생이 이어지도록 한화생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까지 부담없이 **LIFEPLUS 어린이보험(무)**

치아관리도 놓칠 수 없으니까 **한화생명 스마일 치아보험(갱신형)(무)**

중대 질병까지 보장해주는 **한화생명 실속플러스 GI보험(무)**

가입 문턱은 낮추고 가입 한도는 확대한 **한화생명 간편가입 노후안심 차해보험(무)**

FINISH

상담문의 080.365.6363 을 검색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차해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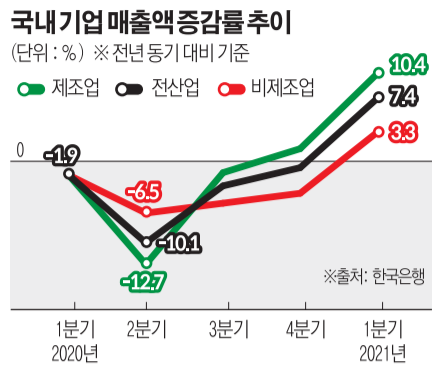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심의필 제2020-03030호 (2020.10.27) 준법감사인확인필 CS 20-10-22

LIFE PLUS 한화생명

매출·영업이익률 늘고 차입금의존도 뚝 '기업경영 파란불'

韓銀 '1분기 기업경영 분석'

매출액 증가율 2년여 만에 플러스 영업이익률은 2년 반 새 가장 높아 빛 늘었지만 차입금 의존도 감소세



기업경영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증가율은 2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증가폭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00원어치를 팔아 64원을 남겨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또, 삼성전자 미국 공장이 한파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매출액과 수익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17일 한국은행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 2만914개 업체 중 38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1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1분기(1~3월) 매출액증감률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분기(6.0%)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또, 2017년 3분기(13.8%) 이래 최고치다.

자동차를 포함하는 운송장비(14.6%)와 기계·전기전자(12.8%), 정보통신(5.6%)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전기차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암호자산) 거래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4%를 기록했다. 1000원어치를 팔면 64원을 남긴다는 의미로, 2018년 3분기(7.6%) 이후 가장 높았다.

매출액증감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각각 6.9%와 6.1%를 기록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아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8.1%, 영업이익은 13.4%에 그쳤다. 한파로 인해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기업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89.4%를 기록해 2017년 1분기(90.3%)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24.4%에 그쳐 지난해 2분기(25.6%)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2019년 3분기(24.2%) 이후 최저치다.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시즌에 따라 부채비율은 증가해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다만 매출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차입금 의존도는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김대진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전반적으로 좋다. 수출도 좋고 내수도 좋았다"며 "언택트 소비로 인한 온라인과 암호화폐 호황에 따른 정보통신업 등은 좋았던 반면, 마트와 편의점 등 대면서비스업체들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품 조달 문제가 해소됐고,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재가동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부문도 괜찮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도 진행 중"이라면서도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코로나 위기에 '한국 IMD 국가경쟁력' 23위 유지

(64개 대상국)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 경제성과에도 정부 효율성은 급락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4개 대상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밝히며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며, 인구 2000만 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인 8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분야별로 경제 성과는 국내 경제(11위→5위), 고용(12위→5위) 개선에 힘입어 27위에서 18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조세정책(19위→25위), 기업 여건(46위→49위) 순위가 하락하며 28위에서 34위로 내려앉았다. 기업 효율성은 노동시장 순위 하락(28위→37위)에도 생산성 개선(38위→31위)으로 전년과 비슷한 순위(28위→27위)를 유지했다. 인프라도 16위에서 17위로 소폭 변동됐다. 체감경기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가 전반적인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5단계 상승 후 코로나19 위기에 불구하고 경제성 성과 분야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올해에도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고 총평했다. 상위 10개국 중에선 전년 3위를 기록했던 스위스가 1위로 올라섰다. 반면, 1위였던 싱가포르는 5위로 내려앉았다. 캐나다는 8위에서 10위권 밖(14위)으로 밀려났으며, 대만이 11위에서 8위로 오르며 10위권 내에 신규 진입했다. 네덜란드(4위), 미국(10위) 등은 전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봄비는 인천공항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17일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교실 이용 엄마들 7.8%P 더 일해 초등 돌봄·방과후학교 통합·확대해야"

KDI 보고서...사교육비도 절감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여성의 근로 참여율이 미이용 여성보다 7.8%포인트(P)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가장 높은 3곳과 가장 낮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자료를 토대로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자료를 구축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30세까지 오르다 30~40세 구간에서 급감하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을 보인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고용구조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와 관련이 깊다고 봤다.

분석 결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P 높았다. 반면, 방과후학교 이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의 근로시간과 사교육 비용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각각 주당 4.7시간 증가, 3만8000원 감소 효과를 냈다. 방과후학교 이용은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사교육 비용 감소 효과는 1만5000원으로 초등돌봄교실보다 작았다.

한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수강이 자율적이긴 하지만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신청해도 탈락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입장에서 방과후 시간에 자녀를 돌봐 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돌봄 공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규수업시수 확대의 효과도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선 사교육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과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권고했다. 정규수업시수 확대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에 학교 돌봄보다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지 기존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정규수업으로 대체되는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규수업시수를 늘리는 문제는 현 교육체계뿐 아니라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돌봄 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4월 AZ 접종자, 내달 화이자 교차 접종 허용

84만회분 도입 지연 따른 수급 불안 해소 조치

7월 한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이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보면,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2000여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고, 7월 2차 접종이 예정된 76만여 명이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교차 접종 대상 중 AZ 백신 2차 접종 희망자는 7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코백스(COVAX)를 통해 6월 예정됐던 AZ 백신 83만5000회분도

입이 7월 이후로 밀린 데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와 별개로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AZ 1차 접종자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교차 접종을 허용 중이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 일정이나 유통, 수송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정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화이자로 변경해서 접종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

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전문가 심의에서도 일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으로 진행하는 게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3분기 도입 예정된 백신은 총 8000만 회분이다. 7월 중에는 AZ, 화이자, 모더나, 안센 백신 총 1000만 회분 도입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백신 부족이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17일 낮12시까지 누적 접종자(1차 이상)는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이틀째 500명대에 정체돼 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0명, 이 중 국내발생은 523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세요

신고면 최대 5배 추가징수액 면제 작년 122억·올 98억...해마다 급증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면제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개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위기가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

가하면서 덩달아 늘고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75억 원(적발 965건)에 달했던 부정수급액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22억 원(978건)으로 늘었다. 올해 1~4월 부정수급액은 98억 원(665건)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수급 사업주는 자진 신고 기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최적의 정화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 방지

〈곤대·수구·기득권〉

김기현 “文정권, 끈수기 정부됐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맹비난
부동산·탈원전·코로나 집중공격
“공정 실천·덧셈의 정치” 약속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동개혁 등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못했을 것들 ‘공정’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세대, 지역, 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을 ‘끈수기(끈대·수구·기득권)’로 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의 사회정책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평균 8만3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 현 정부 비정규직 증가 수는 94만5000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4.2배”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규제·거래세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상향(12억)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5% 이내) 도입 등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이와 맞물린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도 지적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중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니 한 편의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 원에 이르며,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며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 만으로 탄소중립 달성도 못 하고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원 1, 2호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손실비용이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신원 1, 2호기 가동과 신원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며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그들에게 떠넘기시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외에도 그는 정부의 부동산,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 등 국정 전반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주거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감

日, 약식회담 일방 취소·文 ‘올림픽 참관’ 판소리 黨·靑 잇따라 ‘일본 때리기’

청와대와 여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약식회담 취소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참관 등 한일 간 현안을 둘러싼 일본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잇달아 내놨다.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옛날에 아베가 위기 때마다 한국을 공격하면서 (국내 여론을) 반전시켰는데 스가가 똑같은 수법을 쓴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교라는 건 파트너가

다”고 토로했다. 이 수석은 “일본 스가 총리나 일본 여당이 뭔가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아서 자주 (일본)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쓰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물꼬를 틀려는 노력도 해볼 수 있고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면서 의도하는 바도 있다”며 “다 감안해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철희 정부수석 “스가, 아베와 똑같은 수법 사용”
윤건영 의원도 “올림픽 보이콧 고려...버릇 고쳐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우를 뒤야 하는데 (일본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약간 폼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불쾌하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국 취재진에게 경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회담 무산 배경으로 과거사가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수석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웃”이라면서 “외교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내색도 못 하고 끄공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

같은 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무리 일본이 소아병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통 크고 대담하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이기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일본의) 버릇을 고쳐야”

“그러려면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버릇을 고쳐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버릇을 고친다면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방법에 포함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이콧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카드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마지막 경우에 치밀하게 써야 한다. 칼은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을 때 가장 무섭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송영길·이준석 첫 회동 ‘여야정협의체’ 급물살

정책위의장 창구로 논의 착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여·야·정협의체 가동과 관련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창구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양 대표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정협의체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단을 정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우선 정책위의장을 창구로 해서 다뤄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송 대표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의사를 전한 것처럼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협의체 구축이니 항상 논쟁 핵심이던 양당 간 협의체인지 원내 5당 포함 협의체인지 자유롭게 정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여·야·정협의체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송 대표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여야 대표 초청을 기점으로 가동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정세균 “경제 대통령 되겠다”

“대기업 배당·임금동결 사회적 대타협 대한상의·경총 등 재계와 곧 만날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대기업 배당·임금동결’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재벌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땅이 다르다. 땅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임금동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떤가”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라고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국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배당·임금동결 공약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 위험을 무릅쓰고 관심을 끌기 위한 ‘비장의 수’로 보인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반발할 수 있는 과격한 메시지를 던지는 상당히 논쟁적인 공약이라 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 걱정이 있었지만 정 전 총리의 의지가 강했다”며 “검토 결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임금동결 공약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에 맞춰 조만간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메시지를 던졌으니 조만간 대기업에서 반응이 나올 것이라 본다”며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곧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와 만나 임금동결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송영길, 광주 참사에 “버스기사 액셀만 밟았어도...”

당정 대책협의 발언에 구성수 올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희생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송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사고를 보면서 국민이 분노한다”며 “현장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등 고질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이자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못한 데에 대한 현장 안전 부실을 지적하려면 취지”라며 “버스정류장을 사전에 옮겨야 했는데, 담벼락과 바로 붙어 있는 바람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읽혔다. 운전자를 지적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공사 기간에는 버스정류장을 공사 현장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설중대재해방지법을 준비했다. 건축물 개성 관리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 현장을 추가하는 보완 입법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을 총동원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美 배터리 공장 2곳 신설·투자 30% 확대” GM, 전기차·자율주행 40兆 투입

작년 11월 계획보다 액수 늘려
포드·폭스바겐과 경쟁 가속도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에 올인한다. 투자액을 올리고 공장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GM은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2곳 외에 2025년까지 추가로 2개 더 건설하기로 했다. 회사는 현재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에 공장을 건설 중이다.

GM은 또 2025년까지 5년간 전기차에 350억 달러(약 40조 원)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1년 전 200억 달러를 제시했고 지난해 11월 다시 270억 달러로 지원 규모를 늘렸는데 이번엔 종전 계획보다 지출액을 약 30% 늘렸다.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를 충족할 생산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겐 기존 차량 제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차 생산을 늘릴 많은 기회가 있다”며 “하지만 배터리가 없으면 그럴 수 없다”며 공장 설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주요 자동차 기업 전기차·자율주행 투자 계획

기업	투자 계획
GM	- 2025년까지 전기·자율주행에 350억 달러 투자 - 오하이오, 테네시 배터리 공장 건설 중 - 전기차 배터리 공장 2곳 추가 신설 예정
포드	- 2025년까지 전기차에 300억 달러 투자 -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비중 40% 전기차로 -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 계획
폭스바겐	- 2025년까지 전기차에 400억 달러 투자 - 2030년까지 신차 75% 전기차 생산 목표 - 2030년 말 유럽에 배터리 공장 4개 건설 목표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했다. GM은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도 85억~90억 달러를 제시하며 이전에 제시한 예상치(55억 달러)보다 상향했다. 늘어난 반도체 공급과 신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격 강세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일본 혼다를 위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생산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체들은 생산 규모를 늘리고 전기 모터와 같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며 “GM은 회사 최대 수익원인 대형 픽업 트럭과 SUV에서 나오는 이익을 전기차에

몰아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GM은 오는 2025년 전기를 연간 100만 대 판매하고 2035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GM이 전기차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앞서 포드가 올해 F-150 픽업트럭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이 있다고 NYT는 짚었다. 지난달 포드는 2025년까지 300억 달러를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집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야망은 전기차 혁명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40%를 순수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이미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을 방문해 신형 전기를 시승하는 등 포드의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2020년대 중반까지 전기차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업계 경쟁은 치열하다.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지출 계획 자금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y0@

가상화폐까지 ‘웃돈’으로 美 집값 폭등에 패닉바이

매도인 새 집 대신 사주기도

미국 주택시장이 ‘요지경’이다. 공급 부족에 집값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천정부지로 뛴 가격에도 매물 하나가 시장에 나오면 수십 명이 달려들기 일쑤다. 원하는 집을 매수하기 위해 웃돈을 얹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까지 등장했고 매도인이 사려는 다른 주택 가격을 대신 내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집을 구하던 한 매수인은 53만 달러(약 5억9000만 달러)짜리 주택 입찰 전쟁에서 2만 5000달러를 더 불렀다. 최고가였는데 1만5000달러를 제시한 사람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10개를 함께 제시하면서 패했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900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4만 달러를 더 써낸 셈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 옛시 페레즈는 “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고객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면서 “우스운 일”이라고 허탈해했다.

주택시장의 수급 불일치가 최고조에 달하다 보니 웃돈은 기본이고 집주인의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두 채를 매입하는 일도 벌어졌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장에 나온 주택 하나에 50명이 몰렸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인 토머스 브라운은 “내 고객이 원래 가격에 10만 달러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같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이 여럿이었다”며 “그러자 매도인이 집을 팔고 사려고 하는 다른 주택 가격을 내기로 했다. 결국 매수자는 50만 달러 집을 구매하는 데 100만 달러를 지불한 셈



이 됐다”고 전했다. 브라운은 “가격에 관계 없이 각종 제안이 쏟아진다”면서 “본 적이 없는 광경인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미국에서 원래 가격보다 100만 달러 웃돈을 얹어준 거래는 310건 발생해 작년보다 74% 증가했다. 50만 달러 웃돈은 예상일이다. 940건을 넘어서며 작년의 두 배가 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인 질로우에 따르면 최근 미국 집값은 작년 대비 13.2% 급등해 199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오스틴은 30.5%, 피닉스는 23.5%, 솔트레이크시티가 20.6% 각각 뛰었다. 미국 50개 주요 도시 가운데 46곳이 10% 이상 급등했다. 안그래도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웃돈까지 치러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 주택시장의 이 같은 천대만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에 원인이 있다. 컨설팅 업체 로젠그룹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신축 주택 공급이 예년보다 적어 미국 내 주택 부족 물량이 550만 채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서영 기자 jujun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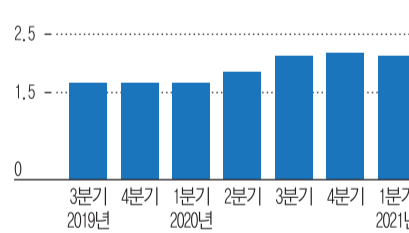
중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 발사
17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의 우주비행사 세 명이 탑승에 앞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을 태운 선저우 12호는 오전 9시 22분경 운반 로켓 장정-2F Y 12에 실려 발사됐다. 중국의 독자적 우주정거장에 보내진 이들은 3개월간 우주에서 머물며 △우주선 수리와 보수 △설비 교체 △과학실험 △우주선 외부 활동 등을 수행한다.

17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유인우주선 ‘선저우 12호’의 우주비행사 세 명이 탑승에 앞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을 태운 선저우 12호는 오전 9시 22분경 운반 로켓 장정-2F Y 12에 실려 발사됐다. 중국의 독자적 우주정거장에 보내진 이들은 3개월간 우주에서 머물며 △우주선 수리와 보수 △설비 교체 △과학실험 △우주선 외부 활동 등을 수행한다.

“코로나 뉴노멀 대비” 실탄 쌓는 기업

1분기 현금 보유액, 전년비 12% ↑

S&P500지수 편입 비금융 기업의
분기별 현금 보유 추이 (단위: 조 달러)
※출처: 블룸버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의 ‘지출 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올해 4-5월 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지수에 속한 비금융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분기 현금 보유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1900억 달러(약 2475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올해 1분기 현금 보유액이 733억 달러로 작년보다 240억 달러(4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현금 보유액은 179억 달러, 애플은 115억 달러, 아마존항공은 105억 달러 각각 늘었다.

미디어 기업 비아컴CBS와 병원 체인 유니버설헬스서비스,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기업에 감사튀김을 공급하는 램프스틴홀딩스도 현금 보유액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램프스틴홀딩스는 지난해 현금 보유액이 301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억1430억 달러로 무려 2273% 증가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현금을 곳곳에 쌓아두는 목적의 변화다. 그간 S&P500지수 편입 기업 대부분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확대 등 주주환원 용도로 현금을

확보해왔으나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커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큰 변화를 보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퍼캐피탈매니지먼트 설립자인 해리스 쿠르쉬드는 “이들 기업이 쌓아둔 현금은 향후 소비자 행동의 ‘뉴노멀’에 대응하는 실탄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잠재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4-5월 분기 실적을 발표한 러셀3000지수 편입 비금융사들은 지난해보다 현금 보유액이 15%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원자재와 소비재 기업이 가장 많이 현금을 늘렸다.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은 현금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바이든·푸틴, 앞에선 “건설적” 뒤에선 ‘기싸움’

양 정상, 긍정 총평한 뒤 개별 기자회견에선 날 선 공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날 선 신경전이 한가득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적대감 없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평했다.

다만 논의 주제가 대부분 양국이 날 선 공방을 펼치던 내용이었던 만큼 실제 회담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 먼저 기자회견을 연 푸틴 대통령은 야권 운동가이자 감옥에 수감 중인 알렉세이 나발니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대신 미국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잘 알려진 사건(의회 난입)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 살해로 심각한 시간을 보냈고, 이는 ‘BLM(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확대됐다”며 “우리가 본 것은 무질서와 파괴, 법 위반이었고, 이 나라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으로, 그간 미국이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자주 활용하던 패턴이다.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스운 비교”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나발니가 감옥에서 죽게 되면 그 결과가 러시아에 치명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러시아 감옥에 갇힌 두 미국 시민에 대

한 문제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해킹 문제에 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의 민주적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거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은 “세계 가장 많은 수의 사이버 공격은 미국에서 이행된다”며 반박했다.

NYT는 “양국은 군사적 위협부터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뤘다”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두 지도자가 공통점을 별로 찾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총평했다.

영국 BBC방송 역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거래는 거의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조치 없이 어떻게 푸틴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눈에 띄게 불만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y0@

개인금융 매각 한국시티은행, '한국' 간판 떼나

기업금융만 하는 은행 '이레적' 은행 법인 → 지점 전환 가능성 모회사 이름으로 돌아갈 수도 금융사 4곳 이상, 인수 의향서

한국시티은행이 소매금융(개인금융) 사업 부문 매각을 진행하자, 17년 만에 법인에서 지점으로 전환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점으로 전환하면 '한국시티은행'이란 간판도 내려야할 판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시티은행은 다음 달까지 소매금융 사업 매각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는 4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방식은 베일에 싸여있다. 과거 시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했다. 유명은행장이 고용 승계를 강조한 가운데 한국시

은행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관련 법령	은행법 제55조
금융위 인가 사항	-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 포함) -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외국은행의 은행업 지점·대리점 인가	
관련 법령	은행법 제58조
금융위 인가 사항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함.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건 불일 수 있음.

티은행의 지점 전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 미국 시티은행이 국내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당시 시티은행의 국내 지점과 법인인 한미은행이 통합해 법인인 한국시티은행이 탄생했다. 모기업이 해외은행일 지라도 법인이면 국내 은행법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현재 은행법을 적용받는 국내 은행 가운데 기업금융 사업만 하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시티은행이 기업금융 사업만 하면서 법인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이례적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시티은행이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하면 은행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은행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은행법상 은행업을 인가할 때 은행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은행법에는 자본금 규모, 적절한 자금 조달 방안,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이 인가 요건으로 제시돼 있다. 상품 종류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 소매금융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은행의 업무 범위 변경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시티그룹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의 소매금융을 철수하더라도 은행업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시티은행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은행

측에서 지점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지점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시티은행이 지점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은행업 인가 자체를 폐지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은행업 자체로 인가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법 제55조는 은행 합병·해산·폐업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가 인가 대상이다.

은행업 인가를 폐지한 이후에 지점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은행법(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을 신설 및 폐쇄도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다. 지점으로 전환하면 '한국시티은행'이 아닌 은행명을 '시티은행'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피모간 체이스 은행 등 국내에서 지점 형태로 있는 외국계 은행은 모은행 이름 그 자체로 간판을 달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스마트폰 시대 이전의 전금법, 더는 놔둘 수 없다”

국회 토론회서 민·관·학 공감대 네이버 “빅테크 특혜 아냐” 항변 금융권 “공정 경쟁 틀 마련돼야”

“국내외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자, 정부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이 현재의 시장을 아우르는 데 낡은 법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지역적인 논란으로 핵심적인 법안 내용이 신속 처리가 지연된 감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용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가능해 핀테크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언급한 논란은 전금법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자(종지업자)를 도입해 은행 계좌 개설 기능을 주고 결제, 이체,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하다. 기존 은행, 카드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는 받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있었다.

정 교수는 “(개정안은) 종지업자의 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 규제와 건전성 규제는 자칫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향후 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경영 업무와 부수 업무 제도에 대한 검토 △전금업자의 리스크 평가 △전금업자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목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은 네이버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선 빅테크에 오히려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청산 의무는 빅테크에만 적용되고, 빅테크는 합병 시 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비금융데이터를 가진 빅테크와의 경쟁은 금융권에 벅하다”며 “시행령에서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장 밖에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금융노조 측은 “네이버는 CMA통장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 이미 은행의 여수신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초거대 독과점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윤종규 KB 회장 “푸르덴셜생명 기대 이상 성과” 윤종규(맨 왼쪽) KB금융그룹 회장이 16일 푸르덴셜생명 창립 32주년을 맞아 임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영업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신규계약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초회보험료가 목표 대비 10% 초과 달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치하했다. 사진제공 푸르덴셜생명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농협, 자산 1조 이상 감사 뒤편 신협은 2000억... “더 엄격” 불만 적용법령·주무부처 모두 달라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의 수정을 검토 중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임에도 농협과 새마을금고, 수협 등과 차이가 나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임감사를 의무로 뒤편 하는 신협의 자산 규모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제27조 8항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업계에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신협의 자산 기준이 엄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이 나오던 것이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은 농업협동

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 보고서에 적힌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지역농협만 상임감사를 뒤편한다. 신협보다 자산 기준이 5배 높은 것이다. 수협은 상임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새마을금고는 시행령에 상임감사가 아닌 상근임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호금융임에도 제각각 기준이 다른 것은 모두 다른 법을 따르고 주무 부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 체계도 모두 달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협을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올릴 경우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자산 기준을 현재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릴 경우를 상임감사를 뒤편 2000억~2999억 원의 신협은 더는 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협은 특성상 연고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부문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산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지만 기준 액수를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협법의 조합원 출자 항목도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를 넘을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는 이 수치가 15%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서민 금융과 지역 금융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은 상호 금융정책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신협법(출자금 조항)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금융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건 금융위의 역할”이라며 “특정 상호금융은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금융) 사고가 계속 난다”고 강조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수은, 파나마 전철 수주 ‘팀코리아’ 7.6억 달러 지원

“중남미 인프라 시장 개척 도움”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에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7억6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파나마 메트로공사가 공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약속서를 발급하면 수은이 이를 할인 매입해 현대건설 등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지역 중장기 인프라사업에 널리 적용되는 방식으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내에 연장 25km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총 28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2019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팀 코리아(Team Korea)’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0년 2월 기술, 상업, 금융 전부분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파나마 메트로공사가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수은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성공적인 파나마 진출을 위해 우월한 금융경쟁력을 제공했다. 수은이 입찰 단계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주단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으로 ‘금융지원의향서’를 발급한 것이다.

수은은 향후 5년간 7억6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채권을 매입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대주단에는 수은을 비롯해 파나마 국책은행, 국제산업은행 등 1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총 매입금액은 27억 달러에 달한다.

수은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의 금융은 그동안 스페인, 중국계 건설사 등이 주도해 온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려 중남미 인프라 사업을 추가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산 기자 jinsan@



국산김치의 명작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 건강하고 맛있게!

농협김치는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듭니다

전국 각지 HACCP 인증시설에서
지역별 특색을 담아 농협이 정성들여 만듭니다.



제품 구매처 ▶ 농협몰(www.nonghyupmall.com) 검색창에 '농협김치'를 검색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애플 게 섰거라” 뜨거워진 손목 위 ‘스마트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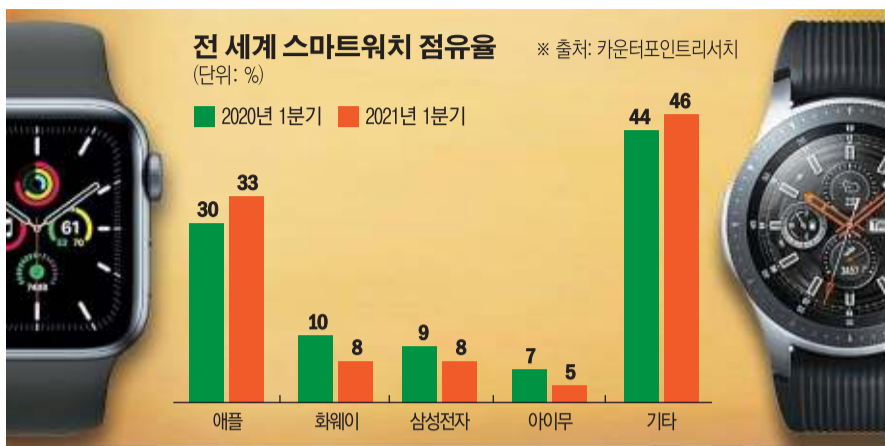
삼성, 차기 스마트워치 출시 임박
구글 통합 OS 탑재 호환성 높여

페이스북, SNS 연동 기능 탑재
내년 여름 출시표 지각변동 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스마트워치 전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던 스마트워치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성장하면서, 특히 다양한 헬스케어(건강관리) 기능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17일 외신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손잡은 삼성전자 차기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4’와 ‘갤럭시워치 액티브4’ 출시가 임박했다.

최근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을 획득한 게 그 근거다. 미국



IT 전문매체 샘모바일이 공개한 FCC 인증 문서에서는 갤럭시워치4, 갤럭시워치 액티브4의 와이파이·LTE 모델번호가 각각 확인됐다.

이번 신제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구글과 협력한 통합 운영체제(OS)가 탑재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 시리즈에 자체 개발한 ‘타이젠OS’를 고수해왔다. 다만 타이젠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보다 해당 OS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부족해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구글과의 OS 협력을 통해 애플워치를 따라잡겠다는 구상이다. 애플은 1분기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33%(카운터포인트리서치 발표)로 부동의 1위다. 애플워치 시리즈6의 판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성장했다. 화웨이(8.4%), 삼성전자(8.0%)가 뒤를 이었다.

애플의 강점은 ‘기기 간 연동성’이다. 애플워치 시리즈의 ‘워치OS’, 아이패드 시리즈의 ‘아이패드OS’가 모두 아이폰 시리즈의 iOS를 기반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으로 OS 호환성 부족을 해결했다. 갤럭시워치4에 탑재될 새 OS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 갤럭시 제품과 호환성에서 더 뛰어나면서, 타이젠 장점인 빠른 앱 전환과 향상된 배터리 효율이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워치 신제품에 적용될 통합 OS는 오는 28일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된다.

애플 역시 지난 7일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새로운 ‘워치OS8’을 공개했고, 올해 하반기 애플워치7을 출시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OS인 하모니OS를 공식 출시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의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도 향후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스마트워치 제품을 내년 여름 출시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자사 사회관계망(SNS)과 편리하게 연동되며, 카메라 역시 2대를 탈부착할 수 있는 형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공을 들이는 건 이 제품이 미래 먹거리인 ‘헬스케어’ 시장과 닿아있기 때문이다.

24시간 항상 사람과 함께하는 스마트워치로 제조사는 개인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개인에게 완전히 맞춰진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가 투자 자회사를 통해 최근 5개 헬스케어 스타트업 업체에 투자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지난해 490억4000만 달러(55조3955억 원)에서 올해 590억2000만 달러(66조6680억 원), 2025년에는 990억 달러(111조8300억 원)로 커질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라이팅 그릴'.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충전상태 알려주는 색 다른 그릴

현대모비스 '라이팅 그릴' 첫 개발
엔진 냉각 위한 개폐기술도 선포

현대모비스가 차량 전면 그릴에 LED 조명 기능을 적용한 '라이팅 그릴'과 차량 상태와 운행조건에 따라 그릴 자체가 개폐되는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 기술을 개발했다.

17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 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차별화된 연구성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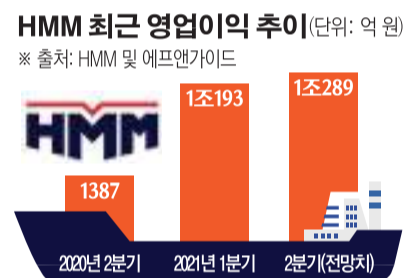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개발한 '라이팅 그릴'은 차량 전면부 그릴 전체를 조명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 모드 △전기차 충전 모드 △헬컴 라이트 기능 △사운드 비트 표시 △비상 경고등 표시 등 다

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순 조명 효과가 아니라 차량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명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강렬하고 독특한 디자인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는 고객사 프로모션 등을 통해 양산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그릴 자체가 움직이면서 엔진과 모터 냉각을 위한 주행풍 유입을 자동 제어하고 여기에 조명 기능까지 활용한 기술이다. 차량의 난방 효율을 높이고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와 전비를 증가하는 것은 물론, 조명을 통한 차별화된 디자인 패턴으로 차량 외관 디자인의 고급스러움까지 구현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HMM, 1분기 만에 최대실적 경신 '청신호'

고유황유 사용 연료비 절감
컨테이너 운임 연일 최고치
2분기 영업이익 1조289억 전망



HMM을 둘러싼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유황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고유황유를 쓰는 HMM은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가 컨테이너 운임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HMM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선박유 정보제공업체 씽앤벵커에 따르면 16일 기준 글로벌 20개 항구 평균 저유황유(VLSFO) 가격은 톤당 547.5달러이다. 같은 기간 고유황유(IFO380) 가격은 427.5달러이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 가격 격차가 120달러까지 벌어졌다. 올해 초만 하

더라도 두 기름의 가격 차이는 100달러를 넘지 않았다. 저유황유와 고유황유 간 가격 격차가 커진 이유는 환경 규제 영향으로 저유황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가격 차이가 벌어질수록 HMM 표정은 밝아지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골자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 규제 대응 방법으로 고유황유를 정제하는 스크러버(탈황설비)를 설치해서다. HMM은 전체 선박 80%에 스크러버를 설치해

저유황유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레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크러버 설치 비용이 낮아 저유황유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해운사들과 대조적인 위치에 놓였다.

물동량 상승으로 컨테이너 운임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1일 역대 최고치인 3703.93을 기록했다. 운임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물동량이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289억 원이다. 올해 1분기(1조193억 원)에 달성했던 실적 신기록을 1개 분기 만에 갈아치울 수 있게 된 셈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조원태 회장 “아시아나항공 인수, 예정대로 순항”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예정대로 잘 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조 회장은 1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국 감사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아시아나 인수 일정이 늦춰지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것 같지 않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애초 이달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으나, 늦춰지는 것 같다는 질문에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들의 기업결합심사

통과 후 이달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춰지면서 인수 절차도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GS칼텍스, 국내 첫 탄소중립 원유 도입

GS칼텍스가 국내 에너지기업 중 처음으로 탄소중립 원유를 들여온다.

GS칼텍스는 17일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 인증을 획득한 스페인 에너지기업 룬딘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럽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 배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들여오는 원유는 3일 처리 불량 정도이다. GS칼텍스의 일일 최대 원유 처리량은 80만 배럴 수준이다.

GS칼텍스는 국내 에너지기업 가운데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한다는 데 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룬딘은 노르웨이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한 뒤 유럽 내에서 규모가 큰 석유개발사로 자리 잡았다.

요한스베드럽 유전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서쪽 14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약 5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된다. 전체 매장량은 27억 배럴이다. 요한스베드럽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는 16일 시험·인증기관 인터택의 ‘CarbonClear’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김대명 기자 kdy@

포스코인터, 푸드테크 기업과 대체육 출시표

HN노바텍·지구인컴퍼니와 협약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이 식량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과 손을 잡는다. 포스코인터는 17일 HN노바텍, 지구인컴퍼니와 각각 글로벌 마케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

는 HN노바텍, 지구인컴퍼니가 생산하는 대체육의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개발 지원 역할을 맡는다. 대체육은 환경 파괴, 건강, 종교 등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육류를 대체하는 단백질 공급원이다. 식물성 고기, 세포 배양육, 식용 곤충 등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되는 중이다. HN노바텍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에서

햄(Heme) 분자를 추출해 대체육 원료를 제조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햄은 철분과 아미노산 복합체로 고기 맛을 내는 단백질의 핵심이다. HN노바텍은 대체육 원료 브랜드 ‘마린미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구인컴퍼니는 세계 최초 식물성 고기 슬라이스 특허를 확보한 대체육 제조 기업이다.

포스코인터는 식량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식량 트레이딩과 인프라 운영을 넘어 국내 유망 푸드테크 기업과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명 기자 kdy@

<에너지저장장치>

LG엔솔, 세계 최대 ESS에 배터리 공급

美비스트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제품 'TR 1300' 랙 납품 완료
피크시간 22.5만 가구 사용 가능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발전사 비스트라(Vistra)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카운티 북동부 모스랜딩 지역에서 가동 중인 1.2GWh(7가와트시) 규모의 전력망 ESS에 최근 배터리 공급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ESS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미국 발전사 비스트라(Vistra)가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Monterey) 카운티 북동부의 모스랜딩(Moss Landing)에 가동하는 1.2GWh(7가와트시) 규모의 전력망 ESS에 배터리 공급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단일 ESS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사용량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약 22만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용량이다.

비스트라는 천연가스, 핵, 태양광 등을 포함해 미국 내 39GW 규모의 발전 설비 능력을 갖춘 발전사다.

비스트라는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모스랜딩(Moss Landing) 천연가스 발

전소'의 퇴역한 노후 화력 발전 설비를 전력용 ESS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신제품 'TR 1300' 랙이 공급됐다.

기존에는 배터리 팩(Pack)과 랙을 해당 ESS 공간에 별도로 출하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ESS를 설치했다. 이번 신제품은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배터리 랙에 설치·조립한 뒤 ESS 장소로 출하해 ESS 현장 설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고성능 배터리 셀(Cell)을 적용해 배터리 랙의 2단 적재(Double-Stacked)를 구현했다.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도 개선했다.

업계의 가장 엄격한 화재 관련 안전 표준도 충족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TR 1300 랙은 글로벌 안전인증회사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열 폭주 화재 전이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방법 표준인 UL9540A 테스트를 마쳤다. 화재는 인접한 배터리 랙으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한, 제품의 디자인은 미국 토목공학회 ASCE 7-16의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 기준에 들어맞으며 지진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중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해 차별화한 ESS 배터리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라며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글로벌 ESS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전력망 ESS 시장 규모는 6.5GWh로 글로벌 전력망 ESS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내년부터는 연평균 54%의 성장해 2025년에는 현재보다 약 9배 높은 55.3GWh까지 커질 전망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기아 전시장 디자인 통일

기아가 국내외 약 7000개 매장의 디자인을 변경한다.

기아는 기존 쇼룸, 전시장 등으로 불리던 판매 전시 공간의 명칭을 '기아 스토어'로 통일하고 디자인 표준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자인 표준에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선사한다'는 브랜드 전략을 반영했다.

올해 2월부터 기아 동탄역 지점을 기아 스토어로 시범 운영했고, 순차적으로 약 7000개 매장을 기아 스토어로 전환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전시 차량을 살펴볼 수 있고, 다목적 바 테이블에서 차량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자동차 수출량 및 수출금액 추이 (1~4월 누적 기준) ※ 출처: KAM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금액 (억 달러)	154.2	148.7	162.1	147.1	124.1	130.5	121.9	126.44	102.98	141.32
수출량 (만 대)	113	104	108	102	88	87	79	80	60	72

반도체 대란 속에도 내실 챙기는 車업계

글로벌 판매 인센티브 축소
할인폭 줄여 이익 확대 나서

현대차와 기아가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내수 시장에서 할인 조건을 축소하는 한편, 북미에서도 판매 인센티브를 줄이는 등 이익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7일 외신과 자동차 업계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 감소했다. 4월과 비교해도 평균 5% 수준 줄었다.

판매 인센티브는 신차 1대 판매에 따라 판매회사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판매가 원활하면 인센티브를 줄이고, 판매 부진이 지속하면 인센티브 확대해 맞대응하는 게 정석이다.

지난달 북미에서는 판매 부진에 빠진 일본 닛산이 인센티브를 무려 15%나 확대했다.

반면 빠르게 회복 중인 일본 도요타(-4%)와 혼다(-10%), 폭스바겐(-10%)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였다. 그래도 판매가 잘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 역시 전달 대비 인센티브를 7%나 줄였다. 업계 평균치(약 5%)를 웃도는 감소 폭인데, 판매 성과급을 줄여도 판매가 원활한 덕이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5월 한 달 동안 두 브랜드가 현지에서 총 17만315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작년보다 56% 증가한 9만17대, 기아 판매도 75%나 늘어난

8만298대에 달했다. 내수 역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할인 폭을 축소하는 사정은 비슷하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서도 내수 차 시장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 무렵 현대차와 기아 역시 본격적인 '신차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며 내수 판매를 확대했다.

이른바 '제품 믹스', 즉 고급차와 SUV 등 차종 다양화를 통해 1대당 판매 단가 역시 지속 상승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힘을 보탰다.

북미에서 판매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매달 바뀌는 '할인 폭'을 축소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재고가 모자란 만큼, 애써 할인 폭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판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최대 100만 원 할인 조건을 내세웠던 기아 스텔러와 K9은 올해 4월 별다른 할인 없이 '와인 프로모션'만 내세웠다.

현대차는 할인 대상 자체를 줄였다. 지난해 6월 세단 5개 차종에 대해 저금리 및 대대적인 할인 조건을 내걸었던 반면, 올해 6월에는 대상을 3개 차종으로 줄였다. 그나마 아직 팔리 않은 2020년형 모델의 재고를 위한 할인 판매였다.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대기수요가 꾸준하다. 기업으로서의 과도한 할인 조건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합법다,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중기부에 휘둘려 제 역할 못해” 동반위 분리·독립 추진

적합업종 지정 등 자율성 제약 민주당, 동반위 분리 법안 발의 독립적 운영으로 기능 강화해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찾아야

국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의 분리·독립 방안을 찾고 있다. 사실상 정부 입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반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유에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반위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을 발굴해 논의하는 민간 위원회다. 주 역할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해 공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공표한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에 앞서 추천하는 일도 맡는다.

민간 위원회인 만큼 동반성장위 위원도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 현재 본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8명, 중견기업 2명, 중소기업 10명, 공익대표 9명 등 30명의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부문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기구지만 정작 동반위가 정부 재단 산하인 점이 걸린다.

동반위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유관 단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속해 있다. 동반위 자체는 민간 합의 기구지만, 이를 운영하

는 사무국이 재단 밑에 본부로 설치된 일종의 '반관반민' 형태다.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적합업종 지정이나 상생협약 등 동반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반위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동반위가 지정 여부를 추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구속력이 낮은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때도 빈번하다. 동반위 '역할론'이 대두하는 것이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된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옮겨갔다. 이에 동반성장위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상태지만,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대신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2월

부터 시작한 중고차 매매업 관련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위가 모호한 만큼 제 역할도 어렵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동반위 역할이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며 "동반위 자체의 위상도 점차 낮아지면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던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도 있다.

업계 전문가는 "동반위 재원 대부분이 기업체에서 나오고 재단에선 간헐적으로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중기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예산 관련해 문제가 있고,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일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동반위를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중기부로부터 바로 지원받되, 자율적이

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동반위를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산업간 분쟁과 갈등의 해소 지원, 정부에의 정책 자문 등 동반위가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산하의 독립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런 논의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한 만큼 내부 검토 중"이라며 "동반위는 산하기관 개념이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SBS, KT스카이라이프 신규 VOD 공급 중단

‘콘텐츠 사용료 갈등’ 지상파로 확산

CP 사업자, 사용료 인상 의지 정부 “갈등키면 개입할 것”

SBS가 KT스카이라이프에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공급을 끊으면서 최근 CJ ENM과 인터넷TV(IPTV)가 촉발한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지상파와 위성방송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KT스카이라이프는 전날 공지사 항을 통해 SBS의 VOD 신규 공급이 중지된다고 안내했다. 스카이라이프는 SBS가 신규 VOD 공급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공급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공급 중단 VOD는 16일 이후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등 신규 VOD다. 이전 VOD는 계속 제공한다.

VOD 공급 중단은 SBS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진행한 2020~2021년 재송신료(CPS)와 VOD 콘텐츠 사용료 협상의 이견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CPS 협상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SBS가 최근 VOD 사용료와 관

련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급 중단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 외에도 KBS, MBC와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지상파 3사와 큰 틀에서 협의는 잘 돼 있는데, 세부 측면에서 협상하다가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BS 외에 KBS, MBC는 현재 파악하기로 VOD 중단과 같은 움직임은 없는 거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SBS의 VOD 공급 중단 사태가 CJ ENM과 IPTV 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CJ ENM에 이어 지상파가 콘텐츠값을 올려 받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로 12일 0시부터 'U+모바일 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다. CJ ENM은 U+모

바일tv가 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175% 인상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CJ ENM은 KT의 OTT인 '시즌'(Seezn) 실시간 채널 사용료 협상 외에 IPTV 3사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최근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11일 밤늦게 입장 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최근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어 갈등 중재에 나서는 한편 시청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령상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운임비 급등에 中企 ‘속수무책’ 73% “물류 애로” 일부 수출 미뤄

전년 대비 운송비 2배 경증 배 못 구해 보관 비용 증가 물류비 부담에 수익성 악화

#. 인천에 있는 제조기업 A사는 갑갑하다. 바닷가에 있지만 정작 제품을 수출할 길이 없어서다. 운임이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그 값을 낼 수도 없다. 제품을 실어 나를 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기계 부품업종을 영위하는 B사도 재고 비용과 화물 보관 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제품을 배에 실어야 계약이 끝나지만, 선복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보관만 하고 있다.

최근 물류비가 폭등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을 중심으로 물류비가 올랐지만 뾰족한 대응책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7일 발표한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 519개사 중 73.4%가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운임 상승이 꼽혔다. '해운 운임 상승'이 65.4%, '항공 운임 상승'이 50.7%를 각각 기록하면서다. 또한, 선복 부족(33.1%), 컨테이너 부족(24.7%), 화물 항공편 부족(17.8%) 등의 답변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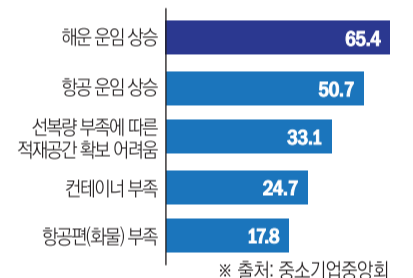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물류비는 체감 3~4배 상승했다.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해외항 주문이 소폭 늘어났지만 물류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며 "지난달 전년과 똑같은 물량을 보내는데 배로 보내는 비용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미주와 유럽, 중국·일본 등 동북아와 같이 전체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물류 상황이 악화하면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미국(62.5%), 유럽연합(62.8%), 중국(22.9%) 등의 수출이 늘었지만, 물류비 상승 폭 또한 컸다. 주요 항로의 경

중소기업 물류 애로사항

(단위: %, 복수 응답)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우 지난해 5월 대비 운임 체감 상승률은 미주 동안(114.9%), 유럽(95.4%), 미주 서안(88.5%) 순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운임이 너무 올라 수출을 지금 상태에서 미루는 기업도 있다"며 "그러나 수출을 미룬다고 운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류비가 오르면서 기업의 경영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5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사 결과 물류애로에 따른 어려움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꼽은 중소기업은 60.5%에 달한다. 응답 중소기업의 26%가 물류운임 상승이 영업이익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10%를 넘는다고 답했고, 10% 이하·5% 초과 하락은 27.7%, 5% 이하 하락은 46.2%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8%, 수입액 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 수준이다. 특히 수출액 규모가 40억 이상으로 큰 기업들의 경우 수출액에서 물류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7.78%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상승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뾰족한 대응책도 없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수출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수출입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물류애로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우리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경기회복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NHN 전자상거래 부문 ‘자상한기업2.0’ 5호 선정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도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과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NHN의 전자상거래 부문 회사들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NHN 커머스 사업 부문과 함께 '온라인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N고도, NHN에이컴메이트 등의 자회사로 구성된 NHN의 커머스 사업 부문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자체 쇼핑몰 구축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자상한 기업 2.0' 5호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전통적인 협력사 위주의 상생 협력을 넘어,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장점을미거대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을 지칭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몰을 통해 소비자 직접



NHN 커머스 사업부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온라인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식을 17일 진행했다. 권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윤식(NHN 커머스 사업부문 대표).

거래(D2C)까지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NHN 커머스 사업 부문과의 업무협약으로 플랫폼 입점과 맞춤 교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을 돕는다. 자사몰 구축과 관리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하고,

NHN 커머스 사업 부문이 보유한 플랫폼 이용료 감면한다. NHN고도 아카데미를 통해 기초부터 쇼핑몰 운영관리, 마케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또 자사몰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시장에서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쿠팡, 3개월 간 물류센터 1조 투자 '배송 승부수'

네이버-신세계 연합 이베이 인수 맞서 '왕좌의 게임'
부산에 첨단물류시스템 갖춰 배송 격차 벌리기 사활

이커머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쟁의의 전장이 펼쳐진다. 네이버와 손잡은 신세계 연합군이 4조원대 베팅으로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이 최근 3개월 사이 물류센터 투자에만 1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쿠팡이 배송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것은 오픈마켓 중심인 네이버나 이베이, 전국구 새벽배송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마트와 격차를 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이츠로 쿵커머스에 진출하고,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빠른 배송에 나서면서 이커머스 왕좌를 노린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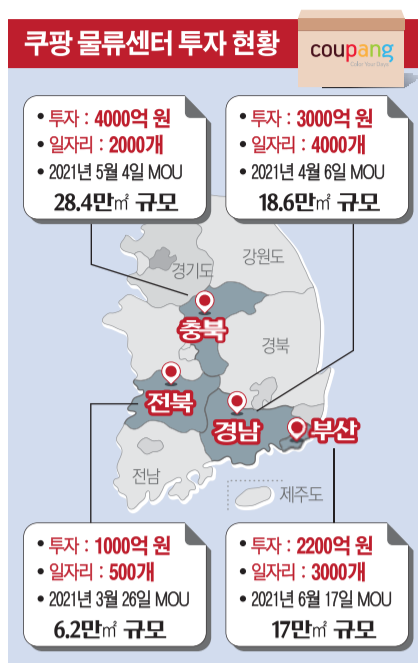
쿠팡은 17일 22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강서구에 17만㎡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 물류센터 투자 협약은 3월 전라북도 완주, 4월 경상남도 창원(2곳), 김해(1곳), 5월 충청북도 청주에 이어 울릉도 내빈재로 발표된 쿠팡의 국내 물류 투자계획이다. 3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 5조원을 확보한 쿠팡은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발표한 누적 투자금액이 1조 2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4개 지역 물류센터 건물들의 연면적을 합치면 70만 ㎡를 넘어서 축구장 100개와 맞먹는 규모이며, 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9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쿠팡 측은 추산한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산 물류센터는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상품 관리와 배송 동선 최적화 등 유통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T)을 망라한 첨단물류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쿠팡의 부산 물류센터는 수출입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시 중요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쿵커머스 진출도 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퀵딜리버리'와 '퀵커머스', '퀵딜리버리' 등의 특허를 출원했다. 최근 쿠팡이츠 분사와 맞물리며 퀵배달에 나설 것으로 해석이 나온다. 쿠팡이 연초 쿠팡이츠를 분사해 독립



법인으로 설립했다는데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쿠팡은 전국에 크고 작은 170여 개의 물류센터를 활용해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 내 물류센터를 활용한다면 '배달의 민족'의 B마트나 요기요의 '요마트'와 같은 다크스토어 형태의 사업이 어렵지 않다.

최근에는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빠른 배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oupage Fulfillment Services)'와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Coupage Logistics Service)', 'CLS', 'Rocket For Merchants' 등의 특허도 신청했다. 지난해 말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점으로 미루어볼때 판매자의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쌓아두고 주문이 오는 대로 이를 배송하는 풀필먼트 사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전략적인 물류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 최근 배송에 힘을 주는 것은 이베이코리아의 인수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가 각각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네이버와 손잡은 신세계그룹은 매각에 나선 이베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하다.

하지만 네이버와 이베이는 오픈마켓 중심 사업을 하고 있어 쿠팡에 비해 배송 인프라가 뒤쳐진다. 신세계와 이마트 역시 현재 SSG닷컴을 통해 시간대 지정 배송인 새벽배송과 새벽배송에 나서고 있지만 신선 식품 위주로 배송을 하고 있어 쿠팡의 배송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 공산품 위주의 빠른 배송에 집중하고 있는 쿠팡으로서 콜드체인을 갖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쿵커머스까지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주현 기자 jooh@

김범석 의장, 해외 사업 집중
한국 내 모든 직위서 물러나



김범석(사진)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향후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며 쿠팡의 해외 진출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한다.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경영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쿠팡 아이엔씨는 한국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김범석 창업자가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쿠팡의 해외 진출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최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에서 쿠팡 앱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생큐! 웰니스족” 날개 단 ‘닭가슴살’

닭고기 시장 내년 3000억 전망
CJ제일제당 ‘닭가슴살’ 출시표
프레스지, 허닭과 간편식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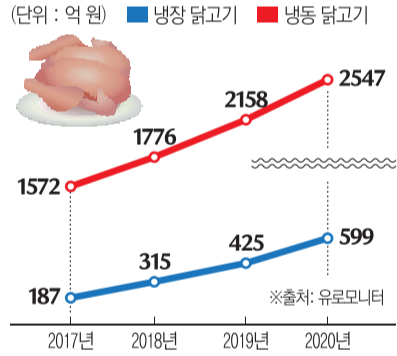
건강에 관심이 많은 웰니스족 증가에 힘입어 냉동·냉장 가공 닭고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닭가슴살 시장에 출시표를 냈고, 밀키트 업체와 닭가슴살 전문 브랜드가 손을 잡는다면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도 장기를 살려 닭가슴살 제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17일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90억 원에 그쳤던 냉장 닭고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599억 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대폭 확대됐다. 같은 기간 냉동 닭고기 시장 규모는 1290억 원에서 2547억 원으로 폭발 성장했다. 전체 시장은 2022년까지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이날 40여 년 쌓아온 육가공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닭가슴살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이 내놓은 ‘The더건강한 닭가슴살’은 ‘직화통살구이’, ‘직화스테이크’, ‘소시지’, ‘꼬치’ 등 총 4종이다. 엄선한 국내산 닭을 12시간 저온 숙성해 닭 비린내를 잡고 보존료, 산화방지제, 색소 등을 넣지 않았으며 35일 이상 보관 가능한 냉장 제품으로, 전자레인지 조리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내달 중에는 ‘동물 복지’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냉장 닭가슴살을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구입한 가구 비중(시장 침투율)이 2018년 9%대에서 지난해 14%(칸타월드패널 조사)로 증가

국내 가공 닭고기 시장 규모



CJ제일제당이 새로 출시한 'The더건강한 닭가슴살'

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닭가슴살 소비 형태 변화에 맞춰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맛품질 구현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키트 전문업체 프레스지는 최근 닭가슴살 전문 브랜드 ‘허닭’과 손을 잡고 간편식 개발 MOU를 체결했다. 프레스지가 보유한 간편식 제조역량과 온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허닭’과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밀키트 외에도 냉동 볶음밥 등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상호 협력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사조대림은 저열량하면서도 영양을 챙기기 쉬운 닭가슴살 건강 간식 ‘365.24 닭가슴살 꼬꼬집’을 출시했다. 닭가슴살과 어포를 혼합한 신개념 건강 간식으로 담백한 맛, 고단백의 영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사조대림은 닭가슴살 바(bar) 제품인 ‘닭가슴살네모나’를 출시하는 등 사조대림도 간편하고 맛있는 닭가슴살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하림은 캠핑족을 겨냥해 ‘하림 IFP 한판 시리즈’를 선보였다. 해동이나 양념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손질 닭고기는 물론 닭목살, 닭근위 등 손질하기 까다로운 특수부위까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에어프라이어로 굽기만 하면 금세 요리가 완성되는 ‘에어라인 한마리닭’과 ‘에어라인 조각닭’을 마켓컬리에서 단독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도 가세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허닭과 손을 잡고 가정간편식(HMR) 버전의 ‘교촌 닭가슴살 도시락’ 5종을 최근 출시했다. ‘전주비빔밥 & 청송식 매운닭불고기’, ‘닭가슴살 카레라이스&골드오믈렛’, ‘매콤닭가슴살 라이스&버섯불고기큐브닭가슴살’ 등으로 구성돼 기호에 맞게 취식이 가능하다.

굽네치킨은 닭가슴살 전문 자사몰인 ‘굽네몰’에서 굽네치킨의 오븐구이 기술로 만든 ‘오븐구이 통 닭가슴살(이하 오통닭) 오리지날·매콤바베큐’,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 한입 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소스가 맛있는 닭가슴살’은 굽네몰에서 500만 팩 이상 팔려 나가기도 했다. 굽네몰 측은 ‘오통닭’을 향후 굽네몰의 전략 제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제철 맞는 ‘국산 생오징어’ 할인

이마트가 17일부터 일주일간 제철 맞는 ‘국산 생오징어(40리)’를 정가 대비 약 28% 할인된 9680원에 선보인다. 마리당 2420원 수준이다. 이마트가 선보이는 국산 생오징어는 동해안 속초·주목진·구룡포 등지에서 어획된 물량으로,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위해 일주일간 8톤 물량을 기획했다. 평소 1주일 판매량 대비 2~3배 물량이다. 오징어는 지난달 말 금어기(4월 1일~5월 31일)가 종료되면서 6월부터 본격적인 어업이 재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랍스터 6만 마리 완판 롯데마트 “10만 마리 더”

롯데마트는 17일부터 ‘항공 직송 캐나다산 활 랍스터 40톤(10만 마리)’을 준비해 랍스터 2만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3일 직접 수입한 항공직송 랍스터 24톤(6만 마리)을 준비해 기존 판매가 대비 50%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선 이를 만에 6만 마리가 ‘완판’됐다. 롯데/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롯데마트GO 스캔 결제 시 마리당 1만 9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산 랍스터는 산란기인 7월 이전

섭식활동이 활발하기에 살이 짙 차 있어, 5월과 6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이며 성어기인 랍스터의 어획량이 많아 가격도 저렴하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18년부터 직소싱을 통해 항공직송으로 랍스터를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이용호 롯데마트 수산 팀장은 “지금 품질 좋은 랍스터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는 시기”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활 랍스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리아 “백신 접종자 30% 할인”

롯데GRS의 롯데리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식업계 최초로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리아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약 350개 직·가맹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매장 카운터에 제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메뉴 5종을 약 30% 할인 판매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는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클래식치즈버거,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데리버거 등 총 5종의 메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매장 카운터 주문으로만 가능하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일상으로 빠른 회복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금리인상 예고에 곱버스 '외줄' 타는 개미들

코스피 '역대 최고' 찍은 날에도 강세 후 하락 예상 1290억 풀어 인버스·곱버스 상품 투자 늘려 주가 실적 탄탄하면 손실 불가피

#. "신용대출 받은 돈도 들어가 있는데 일곱 달 만에 -8.61%가 났습니다. '제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애칭)를 믿을 수밖에..."(직장인 A씨)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금리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증시가 잘 버티고 있지만 웃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다. 지난해 말부터 주가 하

락에 베풀하는 '곱버스'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곱버스는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 폭의 2배(곱하기)로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거꾸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믿을 건 자신밖에 없다는 분위기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도 아무도 모이지 않겠죠."(증권사 PB인 A부장)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소식에도 코스피는 3260선을 지켜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주가 하락에 베풀하는 '인버스(inverse) 상장지수펀드(ETF)'를 끌어 담고 있어서다.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가 나빠지면 최근 같은 상승 랠리로 꺾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200선물인버스2X은 전 거래일 대비 1.33%(25원) 오른 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16일까지 개인은 증시가 하락하면 2배의 수익을 거두는 곱버스에 3284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역방향을 뜻하는 '인버스'와 '2X'란 종목명답게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하락하면 그 두 배만큼 수익이 난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곱버스'로도 불린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6일 하루에만 개인들은 129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밖에도 코스피 지수 하락을 추종하는 'KODEX 인버스'도 이달 들어 781억 원가량을 매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낸 개인들이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나 곱버스 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고,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주가는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행동인데,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증권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을 벗어난데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시장 유동성이 소비보다 자산 가격을 올리는 곳을 향하면서 급격한 지수 하락을 막아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금리에 대한 내성도 생겼다. 실질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질 수 있지만 경기 회복 과정에서 기업 실적 회복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 금리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주가가 탄탄하게 버티면 인버스 ETF 투자자는 자기가 판 우물에 빠진 신세가 되는 셈이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코덱스 200선물인버스 2X'의 최근 1개월 순매수 평균가 대비 수익률은 -0.36%를 기록했다. '코덱스 코스닥 150선물 인버스'(-1.56%), '코덱스 인버스'(+0.18%)도 부진한 성적표다. 개인들이 최근 한달간 3402억 원가량 순매도한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상승률의 두 배 수익) 수익률은 0.64%,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는 10.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LG 계열사 강세... '구광모 실용주의' 통했나

LG디스플레이 주가 4.85% 급등 "1분기 대비 LCD패널 수익성 높아"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1兆 전망... LG, LX 분리 '저평가 매력' 눈길

"구광모식 '실용주의'가 통했다!" 최근 LG 주요 계열사들이 지난 1분기 '깜짝 실적'을 내고 올하는 실적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임 4년차에 들어선 구광모 LG 회장의 공격적 사업 재편 전략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개편에 대한 시장 기대와 주가 전망도 장밋빛이다.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주력 산업 사업을 강화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화학은 3.34% 상승한 83만5000원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 최고가(2월 5일 102만8000원)와 비교하면 4개월 새 18.77%나 떨어졌지만, 시장 우려와 달리 하락은 제한적이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달 25일 보고서에서 LG화학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Outperform)에서 '매도'

(Underperform)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모회사 LG화학은 할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나친 걱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은 명확하다"며 "수요자 측면에서 내연 기관차를 대체할 전기차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재생 에너지 등의 성장이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도 4.85% 급등한 2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LCD 패널의 수익성은 1분기 대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전자는 전날보다 -1.90% 하락한 15만4500원에 마감했다. 지난 4월 19일 17

만4500원까지 오른 데 대한 피로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13만5000원 하던 주가는 우상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1조10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1조5000억 원대였던 1분기에 비해서는 이익이 줄어들지만 역대 최초로 두 분기 연속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효자 덕에 LG도 웃었다. 이날 주가는 1.96%오른 10만4000원을 찍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계열 분리된 LX홀딩스의 상장 자회사 지분 대비 할인율은 22%인 반면 LG의 할인율은 59%에 달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면서 "이번 계열 분리를 통해 LG는 비핵심 사업을 매각함과 동시에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배터리, 대형 OLED, 자동차 전장 등의 성장 동력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SK하이닉스, 협력사 ESG 지원 강화

1000억 원 규모 ESG펀드 조성 환경 분야 강화·근로 개선 도와

SK하이닉스가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ESG펀드'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과 사회분야 개선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들은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시설투자나 운전 자금이 필요한 1~3차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동일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 중 일부인 1000억 원을 ESG펀드로 조성한 것이다.

펀드 자금은 에너지 저감 설비, 오염물

질처리 설비 구축 등 환경 분야 강화와 안전보건환경, 근로 환경 개선 등 사회분야 개선 목적의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기업은행과 'ESG펀드'를 조성했고, 지속적인 협력사 금융 지원을 위해 산업, 농협, 하나, 우리은행과도 협약을 맺었다.

한편 회사 측은 올해 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해 '산업혁신운동'과 '그로잉 업 투게더(Growing Up Together)' 등 무상 컨설팅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히 환경안전 분야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SK하이닉스 김성환 구매 담당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이 되는 협력사의 ESG 경영 기반 조성에 SK하이닉스의 상생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시총 15조~20조 규모 예상 카카오뱅크 상장심사 통과

시가총액이 15조~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가 증시 입성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 적격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지분 31.62%를 보유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수익 8042억 원, 당기순이익 11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날 현재 비상장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의 장의 주식 가격은 9만4500원에 형성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시가총액은 38조7119억 원이다. 다만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시가총액을 약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본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이날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법적으로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는 오는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복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번 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심을 통과한 후 6개월 안에만 상장하면 되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금융멘토링 줌(Zoom)강의를 했다.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온라인으로 실생활 금융지식 배워요"

한화투자증권 '특성화고 금융멘토링' 진행

한화투자증권은 15일부터 '투게더 플러스(Together Plus) 특성화고 금융 멘토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투게더 플러스'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맞춰 '금융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년째를 맞이했다.

'금융 멘토링'은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자

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학생들을 본사에 초청하는 대신 학교나 자택에서 인터넷 화상회의 앱 '줌(ZOOM)'을 이용해 진행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7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특성화고 학생들의 금융 멘

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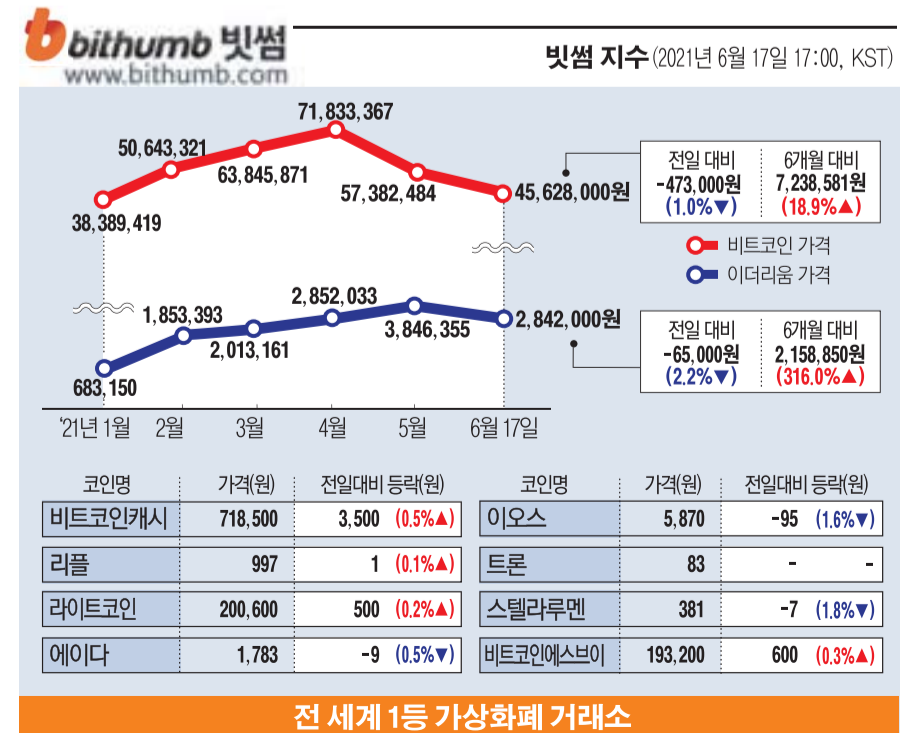
이번 멘토링은 △서울여자상업고 △부산진여자상업고 △제주여자상업고 △영화국제관광고 학생 약 90여 명이 참여해 한화투자증권 멘토들에게 금융 멘토링을 받는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4차산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금융 멘토링'에 참여한 임소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은 "서울까지 직접 가서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데,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으로 강의를 듣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청소년 교육전문 사회공헌 단체인 사단법인 'JA 코리아'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금융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올해 투게더 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여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멀리' 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 용두·신설 주민 동의 충족

<1-6구역> <1구역>

규제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 봉천13·장위9 등 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 가구 공급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주민 동의를 3분의 2를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용두1-6구역은 11일 주민 동의를 70%를 넘겨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신설1구역 역시 15일 주민 동의를 68%로 법적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달성했다. 신설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도 동의율 54%를 넘긴 상태다. 국토부는 봉천13구역을

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 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에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은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 (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외에도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정부도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나서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도 얻고 있다. 최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중 2곳(중곡·망우1구역)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와 SH는 나머지 3곳(신길13·강변강서·미성건영)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를 통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참여도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이 14일 기준 주민 동의를 26%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7일 여론조사 결과 주민 77%(전체 270명 중 응답자 209명 전원 찬성)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는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 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2중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이 폐지된다.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애초 최대 5년까지 소요(서울시 기준)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공모-계획수립)로 단축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속도감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수도권 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공공주택 후보지, 이달 내 잔금 치러야 입주권 받는다

국회서 개정안 처리되는 28일까지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해야 열흘 남짓 남아 조건 매물 등장... 3억대 후보지 빌라 5억으로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공공주택 사업) 우선공급권(입주권)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후보지 공인중개사들이 분주해졌다. 후보지 내 주택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말미가 열흘 남짓 생겼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후보지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만 당한다.

애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 기준으로 삼으려 했다. 후보지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재산을 과다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일이 미뤄졌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이라도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샀다면 시세에 못 미치는 값을 받고 집을 내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다. 현금청산 우려 때문에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서 부동산 매매 절벽이 일어났다.

국회가 입주권 기준일을 미루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선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주택을 매매할 기회가 생겼다. 실제 후보지 곳곳에선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추나무인중개사사무소 노은식 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를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생겼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

는 기자와 이야기하기 직전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바빠졌다.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면서 후보지 내 집값도 뛰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에 거래되던 은평구 불광동 Y빌라(지분 28㎡)는 5억 원까지 올랐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이번 기회에 소유 주택을 줄이려는 모습이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선 한 가구에 입주권을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에 있는 빌라 두 채를 매도하려는 이모씨는 "현금청산 당하느니 피(웃돈)를 붙여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3년 전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5000만~6000만 원 웃돈을 붙여 빌라를 내놨다.

국토교통위는 입주권 기준일을 미루면서 시장 과열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서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2주 정도면 현금 자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등기까지 마치기엔 짧은 기간이 아니다"면서도 "사업에 따라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노원구 상계한양 정밀안전진단 돌입

재건축 탄력, 노원 집값 상승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양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한다.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벽에 부딪히거나 추진을 보류하는 등 재건축 시장 활기에 금이 가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노원구 상계동 한양아파트는 이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한 뒤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한양아파트는 492가구 규모로 1988년에 지어져 이미 준공 연한(30년)을 훌쩍 넘었다. 업체 선정 뒤 약 3개월간의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하면 재건축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강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86㎡형은 지난해 말 6억9000만 원에서 올해 1월 8억9000만 원에 손바뀜됐지만 현재 호가는 최고 9억8000만 원으로 10억 원에 육박한다.

상계동 일대는 최근 재건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다 보니 곳곳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상계주공 6단지가 4월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D등급)한 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남겨둔

상태. 지난달에는 1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고, 9단지가 이달 초 예비안전진단 D등급을 통보받았다. 하계동에선 장미아파트가 3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노원구 아파트값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이번 주(14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5% 상승했다. 7주 연속 0.2%가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데 대한 풍선효과도 집값 급등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울의 재건축 사업 추진 활기가 다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용히 힘을 받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에서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달리 취임 후 토지거래허가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시장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창동역 개발에 도봉구 집값 '들썩'

역사 개발 11년 만에 본격도 '10억 클럽' 단지 속속 등장

서울 도봉구 창동역 개발사업이 11년 만에 본격도에 오르면서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도봉구 일대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될 전망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특수목적법인 창동역사이드트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창동역사역사의 회생 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수 자금으로 1100억 원을 투입해 분양 채권·미지급 공사비 등 채권 금액을 청산했다. 공사는 이달 중 재개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창동역사역사 복합개발은 노후한 창동역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7293㎡ 규모에 복합 쇼핑몰·환승센터·역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창동역 인근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이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며 이른바 '10억 원 클럽'에 가입한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전용면적 135㎡형은 4월 12억 원의 신고가에 매매됐다. 1월만 하더라도 실거래가가 9억2000만 원이었으나 석달 새 2억8000만 원 오른 것이다.

창동 '북한산아이파크5차' 전용 102㎡형은 지난달 7월 13억5000만 원에 팔렸다. 올해 1월 11억6500만 원에 거래된 종전 최고가보다 1억8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창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지역 숙원 사업인 창동역역사역사가 개발 속도를 내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도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들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다.

창동 상아1차는 11일 예비안전진단에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같은 날 창동주공17단지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18단지와 19단지는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절차에 착수했다. 1단지와 4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창동역 일대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욱 기자 t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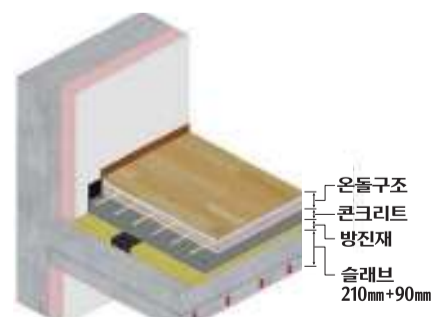
SK에코플랜트, 층간 소음 줄이는 바닥구조 개발

건설사 SK에코플랜트는 층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새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90mm 늘리고 바닥 온돌과 슬래브 사이에 콘크리트와 방진재를 설치해 진동과 소음을 줄였다.

실증 결과 기존 바닥 구조를 사용했을 때보다 중량 충격음(무거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가벼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충격음)이 각각 41데시벨(dB), 26dB까지 줄었다. SK에코플랜트는 새 바닥 구조를 경기 과천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에 적용했다.

김정석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부



문장은 "최근 공동주택의 큰 사회적문제인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주거상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김진욱 “尹 수사, 선거 영향 없을 것” “삼성 지배구조 검토, 경영승계와 무관”

“조희연 특채 의혹 동시수사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처음, 출근길 비공개 이후 5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비롯해 1~9호 사건 확정 과정에서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김 처장은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운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라며 “조 교육감 채용 관련 사건을 동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책임 있게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른바 ‘유보부 이첩’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하면서 공수처가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해 의사 표현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추가 채용 시점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연기 치솟는 물류센터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지검장 대면보고 1년 만에 재개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향방 주목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검장 대면 주례보고를 1년 만에 재개했다.

김 총장은 17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불러 주요 현안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

김 총장이 대면보고를 정상화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과정에서 생긴 보고 공백을 정리하고 조직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보고받은 사건 중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관심이 쏠린

다.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지난주 소환조사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고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면보고 재개는 주요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등의 보고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지휘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김 총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윤 총장 관련 사건도 추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 수사지휘가 제한됐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프로젝트G’ 작성자, 반대신문서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 증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작성자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를 고려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의 세 번째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지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에버랜드가 호텔

급식 사업을 호텔신라에 넘기는 것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한 씨는 변호인이 “삼성증권 IB 부문이나 미전실의 자금파트는 계열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묻자 “전체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삼성증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구조나 지배구조를 개선할지는 경영진,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이자 한 씨는 “맞다. 언급하신 법적 절차들이나 내부 논의 과정 등을 거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씨는 “사업조정방안이 에버랜드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관련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한 씨는 지난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보험사가 계약자에 보험금 소송, 적법”

대법 “법적 불안 제거 위해 채무부존재 소 제기 가능”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전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소 제기는 적법하다”면서도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재판관 3명은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 판단을 해온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0월 사고로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A 씨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의 동생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학부모·학생 등 65.7% 2학기 전면등교 ‘긍정적’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2학기 전면 등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교원 14만 명, 학생 56만 명, 학부모 95만 명 등 총 165만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65.7%가 2학기 등교 확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9.8%는 ‘매우 긍정적’, 25.9%는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보통’은 15.7%, ‘부정적이다’ 8.7%, ‘매우 부정적이다’ 응답은 9.8%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학부모는 79.7%, 교원 52.4%, 학생 49.7%가 각각 ‘긍정’ 또는 ‘매우 긍정’으로 응답했다.

전면 등교에 부정적인 응답은 학생이 30.3%로 가장 높고 교원 29.7%, 학부모 9.5% 순이었다. 학생 중에서는 고등학생 과반수가 등교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이어 중학생(34.3%), 초등학생(23.4%) 순으로 나타났다.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 질문에는 교직원 백신 접종이 59.7%로 가장 많았고, 방역지침 보완 45.4%, 급식 운영 방안개선이 41.8%로 뒤를 이었다. 방역 도우미 지원 24.7%, 집중 방역 주간 운영 26.5%, 유전자증폭(PCR) 이동검체 팀 활성화 조치 21.3% 등도 언급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SK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 재판, 최신원 회장과 병합

900억 규모 배임 혐의

법원이 9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조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농구인에서 경영인 인생 2막
최희암 고려용접봉 부회장**

1990년대 농구대잔치는 한국 농구의 최전성기였다. 당시 뛰어난 실력과 준수한 외모로 유명했던 이상민, 문경은, 서장훈 등은 '오빠부대'로 불리는 팬덤을 구축했다. 이들이 소속된 연세대를 농구대잔치의 전설로 만든 이가 바로 감독 최희암(67)이다. 명감독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는 2009년 인천 전자랜드 감독을 끝으로 코트를 떠났다. 이후 경영인으로 변신하여 현재 고려용접봉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를 만나 농구인의 삶과 철학, 그리고 경영인으로서의 변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농구공 대신 용접봉, 코트 지휘하던 열정 그대로

농구대잔치 흥행의 중심에는 연세대가 있었다. 최희암 감독은 17년간 연세대 감독으로 팀을 이끌며 대학팀 최초로 우승컵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으며, 세 차례의 우승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실력을 증명했다. KBL 출범 이후 프로팀과 대학팀을 오가며 감독 생활을 이어오다 2009년 돌연 은퇴하고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2009년 당시 전자랜드와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했어요. 농구 코트를 떠나기로 했지만, 아쉬움이 컸죠. 그래서 대학에서 농구를 가르치거나 농구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고 맘먹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고려용접봉으로부터 제의가 왔어요. 뜻밖의 제의라서 놀랐죠. 선배들과 아내와 상의했는데, 다들 ‘OK’ 사인을 주더군요. 아내는 감독과 같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 된다고 좋아했어요. 저도 인생 2막으로 다른 길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가 바로 흥민철 고려용접봉 회장이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흥민철 회장이 저의 열정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해요. 전자랜드 감독 시절, 흥 회장과 그의 동생인 흥봉철 전자랜드 구단주와 함께 우연히 저녁 식사를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숙소에서 출퇴근했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갔어요. 감독 할 때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 늘 숙소 생활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아껴서 전술을 한 번 더 짜거나, 선수들 훈련을 1분이라도 더 시키고 싶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를 좋게 봐주신 것이 아닐까요?(웃음)”

반복과 숙달 그리고 다렌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다 다른 분야로 전환한다는 것. 그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농구인이 아니라 경영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

“농구인 출신은 적응력이 빨라요. 우리는 코트에서 점프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구기 종목처럼 볼도 다루고, 필요하면 몸싸움도 해야 해요. 그래서 훈련할 때 다양하게 연습하고, 숙달될 때까지 반복하죠. 반복과 숙달이 몸에 배어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숙달되면 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현대건설 다닐 때도 6개월은 업무를 집에 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



후에는 2시간이면 다 끝났어요.(웃음) 어렵겠지만 ‘한 번 해보자’ 이런 맘으로 시작했어요.”

경영인으로서의 첫 무대는 국내가 아니라 중국이었다. 고려용접봉에서 첫 부임지는 바로 중국 다렌이었다. 중국 다렌의 법인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쉽지 않았을 터.

“일단 젊을 때 회사 생활을 잠깐 해봤기 때문에 경영이 낯선 분야는 아니었어요. 다만 능력상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죠. 게다가 해외라서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첨엔 걱정을 좀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경영도 처음이고 언어의 벽도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만 제시하고, 이외의 세세한 사항은 현지 직원들을 믿고 전적으로 맡겼죠. 만약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발의 위치조차 하나하나 지시했던 농구 감독 때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을 거예요. 경영자로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힘을 그때 많이 길렀어요.”

임시대행으로 시작한 17년

사실 그는 선수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

은퇴 후 삶 고민할때 고려용접봉서 제의
“한 번 해보자” 중 다렌 법인장으로 첫발
“포지션 상관없이 네가 잘 하는것 해라”
감독시절 장기 ‘분업 농구’ 경영에 반영
경청과 소통으로 직원들 의견 이끌어내



았다. 2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은퇴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기도 했다.

“농구 선수로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내 길이 아니라 판단하고 재빨리 다른 길로 나섰어요. 현대건설 다닐 때는 이라크로 파견근무도 나갔어요. 하지만 당시 이라크 현장이 워낙 위험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중학교 체육교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정기 연고전을 앞두고 연세대 감독대행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닐 때 병학마다 어시스턴트 코치로 후배들을 종종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냥 잠깐만 맡아야지 했는데, 무려 17년이나 할 줄은 몰랐어요.(웃음)”

당시 연세대 선수들은 그를 ‘두 얼굴의 사나이’로 불렀다. 혹독한 훈련을 하기로 유명했는데, 이와 달리 실전에서는 부드럽게 선수를 대했다.

“여자배구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창호, 전호관 감독으로부터 감명을 받았어요. 훈련할 때는 선수들한테 엄청 혹독한데, 경기장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경기장에서 선수들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감독은 평소에 훈련을 덜 시킨 거라고. 그때부터 저도 경기장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대했지만, 훈련은 정말 혹독하게 했어요. 더러 도망가는 애들도 생길 만큼요. 물론 혹독하게 대하지만 마음이 쓰이는 부분도 있었죠. 저마다 버틸 수 있는 역량이나 성격이 다르잖아요. 잘 따라오지 못해 힘들어하는 애들을 보면 맘이 아팠죠.”

혹독한 훈련 덕분이었을까? 그는 농구대잔치 시절 연세대 감독으로 우승을 세 번이나 했다. 감독으로서 바라본 우승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비결은 없지만, 원리는 있어요. 농구는 철저한 팀

게임이에요. 감독이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선수만 기량이 탁월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재목이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죠. 다만 재목이 훌륭한 친구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게임을 치러야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코트에서 놓아야 할 골대는 하나고, 이기는 팀도 하나죠. 코트에 들어 서면 최선을 다해야 이길 수 있어요.”

분업 농구와 경영의 길

농구 감독 시절 그의 장기였던 ‘분업 농구’는 고스란히 경영에도 반영됐다.

“분업 농구의 핵심은 ‘네가 잘하는 것을 해라’였어요. 가드는 가드 역할을, 센터는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만 포지션과 상관없이 잘하는 게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센터인데 3점 슈트를 잘 쏜다고 하면 그걸 하라고 했어요. 반면 팀의 승리에 방해가 되는 자기만족을 위한 플레이는 금지했어요. 경영도 비슷해요. 저는 직원들한테 ‘유능한 감독이 돼라’고 해요. 이승엽, 양준혁이 있는데 감독이 필드에서 뛰는 건 웃기잖아요. 자신의 권한과 능력으로 힘들면 뒷사람에게 보고하라고 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줄 아는 상황 판단력이 중요해요. 분업 농구의 경영 버전인 셈이죠.”

끝으로 좋은 리더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결국 경청과 소통이에요. 농구 감독 시절엔 팀이 이기는 데만 신경 쓰느라 다른 걸 못 보니 코치들이 내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야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또한 코치들이 선수의 컨디션이나 심리 상태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하고,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회의를 할 때 직원들부터 먼저 말하라고 해요. 제 의견은 나중에 말하죠. 제가 먼저 말하면 다양한 관점을 듣기 어려워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결해주려고 해요. 언제든 스스럼없이 제게 말할 수 있도록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회사가 확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한 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글/김민수 기자 minsuogld@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을 평생 내편으로

신한 퇴직연금 / IRP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신한은행인 이유**

2021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대상
(개인형 IRP부문 3년 연속)

202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평가
(운용상품 역량 · 수수료 효율성 · 조직역량)



신한 IRP 고객 감사 이벤트

“연금은 행복이다” 이벤트 (2021.5.1~2021.6.30)

- IRP 신규, 자동이체, 추가입금 고객대상 추첨 이벤트
- 총 3,080 명 (당첨자 발표 및 경품제공 2021.7.15)
- 경품: 커피/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이벤트 자세히 보기

신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3가지 기억해주세요!

- 연금입금할 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연금운용할 때는 세금 늦게내는 “과세이연”
- 연금수령할 때는 다른소득세 대비 “저율과세”



카드뉴스 바로보기

이벤트 유의사항 ※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개별 MMS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7.30 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77-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유의사항**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1-10968-1호(2021.5.26 ~ 2022.5.26)

“반복되는 산재사망 추모논평, 안타깝고 무기력해져”

‘정의당의 입’ 이동영 수석대변인

불평등·차별·기후위기 의제 집중, 정의당만의 효능감 주고 싶어 언론 통해 당 비전 전달...좋은 정치 만들기 위한 동료이자 협력자

“언론이 정의당의 좋은 협력자가 돼 달라. 정의당만이 가질 수 있는 효능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

300석의 의석 중 2%에 불과한 6석.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수다. 적은 의석수와 작은 규모 탓에 정의당의 목소리는 쉽게 전달되지 못한다. 이동영(사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의 입’으로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브리핑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각종 현안부터 미래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다.

이 수석대변인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이 첫 번째로 언론을 만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당의 비전이 전달된다”며 “정확한 당론에 입각해 당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월 25일 부임한 후 어느덧 3개월째 대변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수석대변인에게 가장 아쉬운 브리핑은 산업재해 사고 브리핑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매년 반복

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추모 논평을 계속 반복한다”며 “추모를 계속하고 반복되는 논평에 무기력해지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정당으로서 정치가 시민들의 생명 안전 문제나 민생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서 효능감이나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쪽에 힘을 집중해서 실제적인 변화와 성과들을 내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것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정의당이 가진 정치적 가능성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당이 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 수석대변인이 가장 집중하는 정의당의 의제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 위기다. 이 수석대변인은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본다”며 “정의당이 다른 것은 좀 취약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



고 정의당의 정치 활동에 신뢰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 청원 10만 명 달성과 더불어 민주당의 ‘병등법’ 발의로 화제가 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 가장 중요한 의제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중간에 진행을 멈췄는데 이번에는 입법 청원을 보면 시민들의 열망이나 인식, 공감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공감대를 확대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법 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의 당력을 최

대한 원내에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과 관계를 잘 다져 놓는 대변인으로 유명하다. 취임 첫 메시지로도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정당이 첫 번째로 만나는 동료 시민”이라며 “좋은 정치,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정의당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 주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물었을 때 이 메시지를 꼽았다.

거대 양당 속에서 정의당을 향한 언론의 관심은 예전 같지 않다. 이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휘발성 이슈로 시선을 끄는 문제도 기사들이 다뤄지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치,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언론이 정당하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며 “양당 독점 구조는 이제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정당 관계가 돼야 정치의 공간이라고 하는 국회가 조정과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좀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서울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현대오일뱅크 최우수상 수상



현대오일뱅크는 17일 ‘2021년도 서울시 특별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GO 블루, DO 클린’ 분임조(사진)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한국표준협회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울산광역시 주최한다.

서울지역 예선에는 서울교통공사, DB손해보험 등 총 16개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참가했다. 현대오일뱅크 분임조는 ‘세차운영방식 변경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8월 울산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서울지역 대표로 출전한다. 김대영 기자 kdy@

사우디 아람코 전 세계 계열사 평가 에쓰오일, 5년 연속 운영부문 1위



왼쪽부터 박성우 부사장, 박봉수 사장, 후세인 알카타니 CEO, 류열 사장, 안종범 수석부사장, 방주완 부사장.

에쓰오일(S-OIL)은 17일 모기업 사우디아람코가 뽑은 ‘올해의 우수 계열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운영부문(OE) 1위(Best Performance)에 오른 에쓰오일은 상이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사우디아람코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의 전 세계 합작투자 기업과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이 상을 만들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보건·안전·환경, 자산운용, 에너지 집약, 운영 우수 등 총 4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 기업을 시상한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가맹거래과장 전성복
-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팀장 송영광
- ◆한국딜로이트그룹 · 딜로이트 안진회 계법인(승진) ◇파트너 △김병렬 △백승현 △허규만 △고대권 △권혁기 △박준용 △이정연 △강동남 △권봉경 △김경원 △오미란 △장호 △김수환 △유선희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김현구 △민세희 △연영훈 △강이 △김태경 △이정현 △정영희 △고재철 △박준홍 △김정수 △양정준 <보직 발령> △품질관리실장 박인용 · 딜로이트 컨설팅 <승진> ◇파트너 △장지욱 △한경수

부음

- ▲방광석 씨 별세, 박전옥 씨 남편상, 방종주(방송작가)·지영(드라마작가)·송욱(직업훈련교사) 씨 부친상, 김경중(MBN 보도국 시사제작부 부장대우) 씨 장인상, 김호연 씨 시부상 = 17일,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33-760-4644
- ▲박정선 씨 별세, 안용태(전 SK 와이번스 대표이사) 씨 장모상 = 17일,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205호실, 발인 19일, 02-2262-4800

“BTS 멤버보다 어린 나이에 전장에 나선 그들 덕에 오늘의 한국경제·전경련 존재”

허창수 회장, 한국전 참전국·참전용사 후손 초청 감사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국 경제계가 참전국 대사관과 주한 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전 참전국·참전용사 후손 초청 감사회’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전경련 창립 60주년 기념 참전용사 특별 사진전’ 제막식과 ‘참전국·참전용사 후손 초청 감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전경련은 한국의 민간 경제계를 대표해 참전국에 예우를 표하는 행사를 6월마다 열고 있다.

행사는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황기철 보훈처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스텐트 C. 메이어 유엔군 부사령관,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6·25 참전용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참전국 22개국 주한 대사관의 대사(부대사)와 무관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 머무는 해외 참전용사 후손들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허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의 방방소년단(BTS) 멤버들보다도 어린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싸운 195만 명의 젊은이들 덕분에 오늘날 세계 7위 수출 강국,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경제의 위대한 성취와 한국경제의 총본산인 전경련이 존재한다”며 “60년 전 무너진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보겠다고 전경련을 만들었던 기업인들은 참전국들이 지켜준 안보의 토대 위에서 오늘의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냈다”며 공을 돌렸다.

‘전경련 60주년 기념 참전용사 특별 사진전: Project Soldier KWH’ 제막식은



허창수(오른쪽 첫 번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스텐트 캠벨 메이어(두 번째) 유엔군 부사령관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창립 60주년 기념 참전용사 특별 사진전’에서 라이미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보고 있다. 뉴스스

행사에 참석한 참전국 대사, 부대사와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직접 진행했다. 프로젝트 솔저(Project Soldier)는 사진작가 라이미 씨가 생존한 전 세계 참전용사들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현 작가는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하여 세상

에 알리고 사진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며 “사진값은 이미 70년 전에 전부 지급하셨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현 작가의 이런 노력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사진전은 전경련회관 로비에서 17일부터 30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스티글리츠 “獨, 백신 지재권 지키려 세계를 인질로”

개도국 생산능력 없다는 건 “인종차별·신식민주의적” 비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 매체 디차이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의로 복잡하게 만든 특허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네트워크를 폐지해야 한다”며 “백신 생산을 늘리고 전 세계 인구를 보호하고,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재권 보호 면제에 반대하는 독일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오랜 기간 백신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만드는 데 동의

했다”며 “이런 해결책에 반대하고 있는 곳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이라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독일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며, 전 세계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지재권 보호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백신 배포 문제는 지재권이 아닌 현지 생산능력에 있다는 것이 독일 측 입장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개발도상국이 백신 생산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는 인종차별적이고 신식민주의적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며 “독일은 입장을 빨리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

MS 세번째 이사회 의장에 오른 나텔라 CEO

2014년 취임 후 부활 주도...사내 성추문 해결 등 숙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신입 이사회 의장에 사티아 나텔라(53·사진)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나텔라 CEO는 회사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IBM 부사장 등을 지낸 존 톰슨에 이어 3대 이사회 의장이 됐다.



MS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존 톰슨 의장 후임으로 나텔라 CEO를 선임하기로 했다. 톰슨은 의장직에서 내려와 사외이사로 복귀하게 된다. MS는 성명을 통해 “나텔라 의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렛대 삼아 이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작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선임이 나텔라 CEO의 사내 영향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출신의 미국 공학자인 나

텔라 CEO는 인도 망갈로르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밀워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선마이크로시스템스(현 오라클)를 거쳐 1992년 MS에 합류했다. 서버·클라우드·기업 서비스 부문 총괄부사장 등을 거쳐 2014년 3대 CEO로 선임됐다. 그는 위축된 PC 시장과 스마트폰 사업 부진 등 어려움을 딛고 회사를 부활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성 추문을 포함한 사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를 두고 회사 안팎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CNN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MS가 더 많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화가 질병이라고 미리 공식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적으로는 노화를 고쳐야 할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때...

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정상적 발달 단계인가, 아니면 피하기 위해 애쓰고 대항해야 할 질병인가? 지난 수십 년간 사회과학 이론은 노화를...

에 노화를 포함시켰다. 이처럼 노화가 질병이라고 미리 공식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적으로는 노화를 고쳐야 할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때...

회적 변화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부유한 사람만이 노화를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혜택을 누리게 될...

포함시킨 것이다. 노년초월은 인간의 노화란 삶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성숙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노년기에 접...

대방로

김재수 동국대 석좌교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코로나19와 한국 축산의 미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이라 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병이 1400여...

쳐 왔기 때문이다. 과거 방식에서 연간 5200만 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왔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 금지됐으며...

서 추출된 바이러스가 과거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이 사망한 것과 같은 유형의 H1N1이라는 보고도 있다. 가장 피해가 심했다는 스페인 독감으로 1918~1919년에 걸쳐...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델 베리모어 명언 "자신을 보며 난생처음 진심으로 웃는 날, 사람은 성장한다." 미국의 연극, 영화, 라디오 배우. '브로드웨이의 여왕'이란 애칭으로 불린 그녀는...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등록·관리 제도 도입 후 5년 정도 흘렀다. 취지는 아주 훌륭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LP(펀드 출자자), VC(벤처캐피탈), 스타트업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존재다. 액셀러레이터가 LP로부터 출자를 받고, 발굴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육성한다. 또한 벤처캐피탈과 후속투자 연계가 또 다른 역할이다.

기자수첩

원. '제2의 벤처붐 시대'에 '액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은 상당했다. 스타트업에게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특히 파트너십은 스타트업의 부족한 경험, 네트워크, 도메인...

전문성 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일부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팀 세팅, 아이템 선정, 검증도 돕기도 했다. 문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쁜 액셀러레이터들이다. 액셀러레이팅 하...



고종민 IT중소기업부/kjm@

액셀러레이터, 이제 질적 관리 필요하다

려면 스타트업 초기 팀원 수준으로 서포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투자금 이외의 다른 가치(파트너십)를 돕지 않는 곳도 많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러한 곳들을 선별하기 어렵다. 모 스타트업 대표가 말했다. "비싼 밥을 많이 사준다고 좋은 액셀러레이터는 아니다"라고.

☆ 시사상식 / 팻 핑거(fat finger) 증권 트레이더가 주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재판보다 굵은 손가락 때문에 실수로 입력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미국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한 투자은행의 직원이 거래 단위로 M(Million)을 B(Billion)로 눌러 15분 만에 다우지수가 998.5포인트(9.2%) 떨어졌다.

이슈&인물

동네마트 주문·배송 플랫폼

양창훈 비즈니스 인사이트 회장

“30분 배송...쿠팡·B마트 경쟁상대 아니다”

“온라인 장보기 후 30분 만에 상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비즈니스 인사이트 양창훈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가 먼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회의실은 물론 임원들의 개인 사무실 문마다 자신의 경영철학이나 신념을 글귀로 남긴다. 양 회장이 선택한 경영철학은 바로 ‘역지사지’다.

“자장면 배달 수준인 30분 내에 배송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그가 질문에 직접 답한다.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주력 계열사인 리테일&인사이트가 개발한 토마토솔루션이라면 30분 배송이 가능합니다.”

리테일&인사이트의 토마토솔루션은 물류센터 없이 동네 슈퍼마켓과 동네 마트의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장보기와 결제, 배송까지 완료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슈퍼나 마트 운영자는 포스(POS) 시스템과 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재고관리와 입출고는 물론 고객의 온라인 주문과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 500여 개 지역 마트가 토마토솔루션을 도입해 오프라인 중심 매출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동네마트의 자체 창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강자들처럼 물류센터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다.

중·하마센성·美 인스타카트가 경쟁자
양 회장은 “토마토솔루션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리테일&인사이트의 경쟁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아니다. 온라인 장보기로 가장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배달의민족 B마트도 아니다. B마트보다 3~4배 빠른 배송이 강점인 만큼 사실상 국내에 경쟁 상대가 없다”고 설명한다.

양 회장은 토마토솔루션이 전국 2만 개 마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2023년이면 목표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양 회장은 토마토솔루션을 앞세워 리테일&인사이트를 거래액 11조 7000억 원, 매출 1조 원의 유통 공룡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자신의 목표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 유사한 사업모델이 이미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토마토솔루션이 개발된 시기와 같은 2019년 설립된 미국의 벤처기업인 ‘인스타카트’는 비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2위(장외주식 기준)다. 인스타카트는 별도의 물류센터 없이 앱을 통해 소비자와 인근 슈퍼마켓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설립 2년 만에 500%나 성장했다. 2021년 기준 기업 가치가 43조 원에 이른다.

알리바바의 대항마로 꼽히는 중국의 ‘푸어디엔’ 역시 오프라인 마트의 온라인화를 이끌면서 지난해 거래액이 8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푸어디엔을 알리바바에 견주는 배경은 최근 알리바바가 소매점 허마센성을 앞세워 빠른 지역 배송을 도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허마센성은 인근 소매점에서 제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토마토솔루션을 이용하는 지역마트와 유사한 수준인 30분 배송이 가능해졌다.

토마토솔루션의 네이밍도 재미있다. ‘토마토’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지 묻자 양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한다.



양창훈 비즈니스 인사이트 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비즈니스 인사이트 회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양 회장은 “토마토 솔루션은 동네 마트의 인프라를 활용해 온라인 장보기 후 30분 만에 배송, 사실상 국내에 경쟁 상대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물류센터 없이 기존 인프라 활용

슈퍼·마트는 포스·앱만 설치

지역상권 살리는 ‘토마토솔루션’

현재 500여곳 도입, 2만곳 확대

거래액 11조·매출 1조 성장 가능

美·중서도 유사한 모델 성공 평가

맛집 레시피로 가정간편식 개발

지역 식당 키우는 ‘블루스트리트’

원격의료 ‘라인케어’사업도 추진

“마트는 오늘도 내일도 이용하는 친숙한 곳입니다. 토마토는 ‘Today Mart Tomorrow Mart’의 줄임말이죠. 매일 이용하는 마트이자 미래의 마트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신선한 토마토 같은 마트라고도 할 수 있죠.”

착한 기업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

양 회장은 ‘착한 기업’을 지향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의 맛집을 발굴해 대표 레시피를 가정간편식(HMR)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블루스트리트가 대표적이다. 리테일&인사이트와 더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주요 계열사인 블루스트리트 역시 토마토솔루션과 닮은꼴이다. 토마토솔루션이 지역 마트의 강점을 발굴해 육성한다면, 블루스트리트는 지역 식당의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블루스트리트는 지역 식당의 우수 제품을 HMR로 개발하도록 해 지역적인 소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블루스트리트는 레시피를 제공한 식당에 판매액의 5%의 로열티도 지급한다. 광화문 돼지국밥, 똑방길 훠차가게의 스킨 등을 HMR로 개발해 유통 중이며 ‘미슐랭가이드’처럼 블루스트리트의 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HMR 메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라인케어는 의료적인 소외를 해소할 목적으로 탄생한 계열사다. 디지털 헬스케어·원격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라인케어

는 필리핀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는 아직 원격진료가 시가지조이기 때문이다. 라인케어는 필리핀 주요 병원의 사와 도서지역 환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굿네이버스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수평적 조직문화로 유연한 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경영컨설팅과 IT 솔루션 기업이자 리테일&인사이트, 블루스트리트, 라인케어 등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다. 대부분의 지주사가 홀딩스나 그룹으로 명명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이를 거부한다. 회사의 경영을 맡은 양 회장과 성준경 대표이사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에서 유연한 사고가 나온다는 데 공감한다.

이들이 선택한 지주사의 공식 명칭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콜렉티브(Business Insight Collective)다. 공동체(Collective)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회사명이다. 양 회장의 경영철학인 ‘역지사지’ 역시 직원·협력사·고객의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국내에 생소하다.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의 동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비치하는 사소한 부분부터 기업의 정체성을 디자인하는 경영 컨설팅까지 기업경영과 소비자 관리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디자인 기업인 영국의 엔진그룹이 비즈니스 인사이트의 롤모델이다. 엔진그룹은 버버리 매장을 복층으로 구성해 2층에서 1층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테라스 형태로 만든 서비스 디자인 기업이다. 삼성과 현대차 등의 유럽 컨설팅 파트너이기도 하다. 비즈니스인사이트도 국내에서 삼성과 SK의 주요 협력사로 이름을 올렸다.

양 회장은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용산 아이파크몰을 흑자기업으로 바꾼 것은 소외된 곳을 돌보고 약자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마트를 지역 강자로 만드는 토마토솔루션과 지역 식당을 전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블루스트리트는 그가 세운 목표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사설

미국 테이퍼링 공식화, 커지는 경제·금융 리스크

예상대로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통한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0~0.25%로 동결하고, 매달 1200억 달러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Fed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태도가 바뀐 언급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이미 논의와 준비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코로나19 이후의 대규모 양적완화를 멈추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뜻한다. 8~9월 정책이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긴축에 들어갈 것이라 예측이 지배적이다. 테이퍼링 이후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분명해지고 있다. Fed가 공개한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인 점도표(點圖表)는 2023년 두 차례 금리인상을 가리켰다. 당초 Fed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Fed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의 2.4%에서 3.4%로, 경제성장률도 6.5%에서 7%로 대폭 높였다. 조기 긴축과 금리인상의 배경이다.

금융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미 국채금리가 치솟

았다. 한국도 17일 코스피지수가 13.72포인트(0.42%) 떨어진 3264.96으로 내려앉았고, 서울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원 급등한 1130.4원에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과거 2013년의 ‘긴축발작’이 재연될 우려가 완화돼 있기는 하다. 긴축 발작은 Fed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신호를 내놓으면서 신흥국의 주식·채권값과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충격을 가져온 사태다. 정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우리의 시장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이 있겠지만,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테이퍼링이 예측되면서 불확실성을 줄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본격화할 경우 충격은 여전히 가늠하기 힘들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차원의 돈풀기가 긴축으로 바뀌는 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금리 정상화에 대한 압박도 더 커진다.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까워졌음을 예고한 상태다. 긴축과 금리인상의 시동이 걸리면 추세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파장을 몰고 올 공산이 크다. 민간의 과도한 부채가 최대 위험 요인이다.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의 정책 재검토와 체계적인 대책 준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 킷



도로에 방치된 카트, 마트에서만 쓰세요~

서울 한 도로에 방치된 여러 대의 쇼핑 카트. 카트 안에는 쓰레기만 수북이 쌓여 있어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형마트의 사유재산인 카트는 대당 10만~20만 원. 무단 반출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특성상 평판 저하를 우려해 업체들은 단속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비양심’이 길 한편에 쌓여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The new Kia K9

Masters that inspire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9.0km/l (도심연비 : 7.8km/l, 고속도로연비 : 11.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배출량 192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2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8km/l (도심연비 : 7.6km/l, 고속도로연비 : 10.8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배출량 194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8km/l (도심연비 : 7.6km/l, 고속도로연비 : 10.7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6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l (도심연비 : 7.5km/l, 고속도로연비 : 10.5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40kg | 복합CO₂배출량 198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4km/l (도심연비 : 7.3km/l, 고속도로연비 : 10.3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04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AWD 18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l (도심연비 : 7.0km/l, 고속도로연비 : 10.3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00kg | 복합CO₂배출량 210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3km/l (도심연비 : 7.3km/l, 고속도로연비 : 10.1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7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8 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2km/l (도심연비 : 7.2km/l, 고속도로연비 : 10.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2,010kg | 복합CO₂배출량 209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7km/l (도심연비 : 7.4km/l, 고속도로연비 : 10.9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199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3 T-GDI 2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6km/l (도심연비 : 7.4km/l, 고속도로연비 : 10.6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05kg | 복합CO₂배출량 200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자동 8단 : 복합연비 8.1km/l (도심연비 : 7.0km/l, 고속도로연비 : 10.1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3g/km - 5등급 · K9 V6 람다 II 개선 3.3 T-GDI AWD 19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장착) 자동 8단 : 복합연비 8.0km/l (도심연비 : 6.8km/l, 고속도로연비 : 10.0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2,075kg | 복합CO₂배출량 216g/km - 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 운전방법 · 차량적재 ·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원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